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관리전공

이 정 찬

HANSUNG
UNIVERSITY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기수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National Safety Experience Centers

HANSUNG UNIVERSITY

202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안전학과

사회안전관리전공

이 정 찬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기수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National Safety Experience Centers

위 논문을 사회안전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6년 6월 일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사 회 안 전 학 과

사회안전관리전공

이 정 찬

이정찬의 사회안전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6년 6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 사 위 원 최 천 근 (인)

심 사 위 원 박 기 수 (인)

심 사 위 원 류 종 용 (인)

국 문 초 록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 성 대 학 교 행 정 대 학 원
사 회 안 전 학 과
사 회 안 전 관 리 전 공
이 정 찬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이 특정 연령층,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갖추어진 현실에 주목하여,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을 포괄하는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정책의 필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된 법·제도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8개 주요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체험 프로그램을 어린이·학생 대상 프로그램, 성인 대상 프로그램, 혼합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성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의 실제 비중과 운영 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은 전반적으로 어린이·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자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의 비율은 전체 프로그램 중 약 7%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체험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안전체험 운영정책에서 성인이 주요 교육 대상자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재난안전

교육 관련 법령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의 대상과 운영 기준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도적 구조와도 일정 부분 연관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정책이 특정 연령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적 특성을 확인하고,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제도적 구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특히 내부적 규율인 행정지침 수준에 따라 성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의 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체험관 운영 기준을 보완할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주요어: 국민안전체험관, 재난안전교육, 체험형 안전교육, 운영정책, 거버넌스

HANSUNG UNIVERSITY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문제 ·····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

제 2 장 이론적 배경 ····· 8

제 1 절 재난대응 역량과 체험형 안전교육의 이론적 기반 ····· 8
1)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 8
2) 체험형 안전교육의 이론적 논의 ····· 10
제 2 절 성인학습이론과 성인 대상 안전교육 ····· 12
제 3 절 시민 초기대응자와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 ····· 14
1) 시민 초기대응자의 역할과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 14
2) 안전거버넌스와 재난안전교육 ····· 16
가) 학교 중심 전달체계 ····· 17
나) 성인 대상 전달체계의 한계 ····· 19
다) 소방기관·교육기관·지역사회 협력 구조 ····· 21
제 4 절 운영정책 대상 선정과 설계 ····· 23
제 5 절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국외 운영사례 ····· 24
1)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선행연구 검토 ····· 24
2) 주요 국가의 국민안전체험 운영정책 사례 ····· 27
가) 일본의 방재관(防災館) 운영 체계 ····· 28
나) 미국의 지역사회재난대응팀(CERT) 연계 교육 ····· 29
다) 싱가포르의 체험·참여 연계형 재난안전교육 ····· 30

제 3 장 운영실태 ····· 33

제 1 절 재난안전교육 운영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 33

1) 재난안전교육 운영정책의 법적 기반 ····· 33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성인의 실질적 대응 의무 ·· 35
3) 국민안전체험 운영정책의 대상 구조 ····· 36
4) 제도적 강도 차이 ····· 37
제 2 절 분석틀 및 분석기준 ····· 38
1) 분석 변수 설정 ····· 38
2) 분석기준 및 분류 원칙 ····· 39
제 3 절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 ····· 40
1)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현황 ····· 40
2) 국민안전체험관 접근성 실태 ····· 41
3) 국민안전체험관 기본 구성 현황 ····· 42
제 4 절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 구성과 주요내용 ····· 44
1) 체험 프로그램 구성 현황 ····· 44
2) 사회재난 체험 (소화기, 농연장, 완강기, 지하철 등) ····· 49
3) 자연재난 체험 (지진, 풍동, 생존수영) ····· 59

제 4 장 개선방안 ····· 62

제 1 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 62
1) 운영성과 평가와 운영정책 목적 간 괴리 ····· 62
2) 체험관 운영 체계와 접근성의 구조적 한계 ····· 64
3) 프로그램 구성의 편중과 다양성 부족 ····· 65
4) 재난유형별 체험프로그램의 실전성 한계 ····· 65
5) 체험 운영대상 편중의 한계 ····· 68
6) 체험실태 결과 및 시사점 ····· 70
제 2 절 국민안전체험관 설계 방향 ····· 72
1)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정책의 구조적 문제 ····· 72
2) 생애주기 기반 국민안전체험 운영정책 제안 ····· 74

3) 재난 유형별 성인 맞춤형 실전 체험 콘텐츠 설계 ····· 75
4) 성인 안전체험과 어린이 안전체험의 공간·운영 설계 차별화 ····· 77

제 3 절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체계의 제도화 및 추진전략 ····· 79
1) 제도적 강도 강화 방안 ····· 79
2) 거버넌스 기반 운영 구조 개선 ····· 80
3) 법정 의무교육과 국민안전체험관의 행정적·제도적 결합 모델 ····· 82
4) 운영정책추진 전략 세분화 ····· 83

제 5 장 결 론 ····· 85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 85
제 2 절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86
제 3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 87

참 고 문 헌 ····· 90

ABSTRACT ····· 94

HANSUNG UNIVERSITY

표 목 차

[표 4-1] 국민안전체험관 기본 운영 현황 ····· 42
[표 4-2]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 ····· 43
[표 4-3]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대상 구성 ····· 67

HANSUNG UNIVERSITY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 4
[그림 2-1] 도쿄 재난안전체험 공식 소개 자료 ····· 28
[그림 2-2] FEMA 공식 CERT 소개 페이지 ····· 29
[그림 2-3] SCDF 공식 안내 페이지 ····· 31
[그림 4-1] 소화기 체험 - 성인, 어린이 ····· 49
[그림 4-2] 농연 탈출 체험 – 성인, 어린이 ····· 50
[그림 4-3] 완강기 탈출 체험 - 성인, 어린이 ····· 51
[그림 4-4] 피난구조대 체험 - 성인, 어린이 ····· 51
[그림 4-5] 공기안전매트 탈출 체험 ····· 52
[그림 4-6] 심폐소생술 체험 - 성인, 어린이 ····· 53
[그림 4-7] 교통안전 체험 - 성인, 어린이 ····· 54
[그림 4-8] 지하철 탈출 체험 - 성인 ····· 55
[그림 4-9] 민방위 체험 - 성인, 어린이 ····· 56
[그림 4-10] 생활안전 체험 - 성인, 어린이 ····· 56
[그림 4-11] 산불진압 체험 - 성인, 어린이 ····· 57
[그림 4-12] 지진 체험 - 성인, 어린이 ····· 58
[그림 4-13] 풍동 체험 - 성인, 어린이 ····· 59
[그림 4-14] 생존수영 체험 - 성인, 어린이 ····· 60

HANSUNG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HANSUNG
UNIVERSITY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문제

현대 사회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홍수, 폭염, 집중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붕괴, 교통사고, 전염병, 테러,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재난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 대응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재난 발생 이전의 예방과 대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이 재난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이해하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안전교육은 중요한 국가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에 그치기보다 실제 상황에서 각종 사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은 재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민안전체험관이 설립·운영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2025)의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통계가 지속적으로 관리·공개되고 있으며, 체험관 현황 자료는 국가 안전교육 인프라의 확충 추세를 보여준다. 국민안전체험관은 화재, 지진, 심정지,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상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행동을 직접 경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험형 교육은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보다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인 행동 중심의 학습 효과를 강화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면 교육 대상이 특정 연령층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드러난다. 특히 많은 체험관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성인이 초기 대응의 주요 주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구조는 재난대응 역량 향상 측면에서 너무 큰 문제점으로 향후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관심 부족이나 참여 의지의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 국민안전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대상자의 설정이나 프로그램 구성 역시 정책과 제도적 구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기획과 제도적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재난환경의 변화는 국민안전교육의 방향에도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의 안전교육이 주로 이론 전달과 주의사항 숙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의 안전교육은 실제 재난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행동 능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재난안전교육은 단순히 위험을 인식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행동 역량을 형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은 학습자의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반복적인 행동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순한 전시나 견학형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 교육 인프라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의의가 크다.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체험관의 수와 유형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안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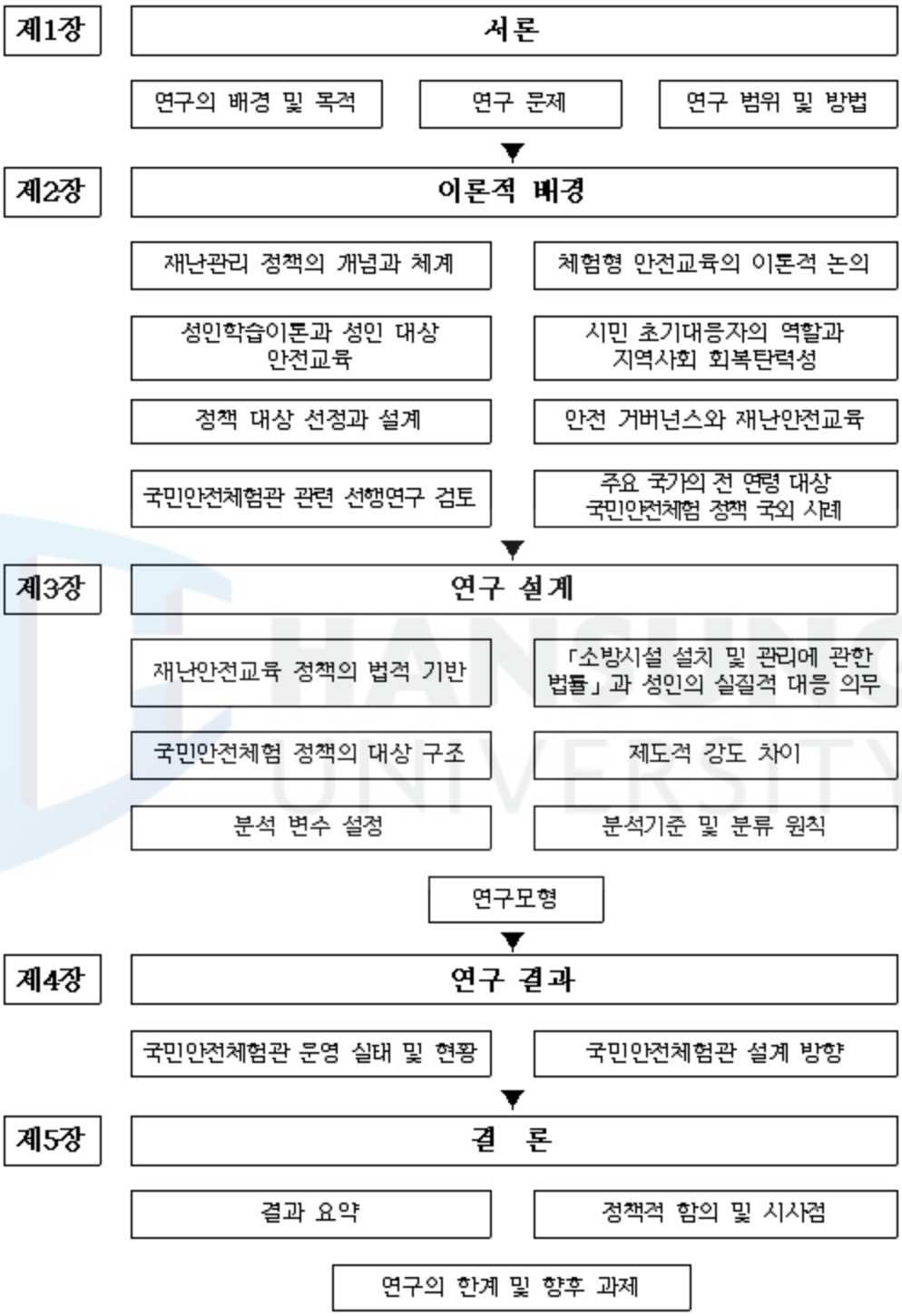
육이 학교나 일부 기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와 별개로, 실제 체험 프로그램이 누구를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비중이 높은 반면, 성인을 독립적이고 핵심적인 교육 대상으로 설정한 체험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 초기 화재 진압, 대피 유도, 응급처치, 취약자 보호 등의 역할은 주로 성인이 수행하게 된다는 점에서, 성인 대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부족은 단순한 프로그램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관리 체계 전반의 실효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의 교육 대상 구조를 단순한 운영 현황 차원이 아니라 정책 설계와 제도적 환경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교육 대상자 구조를 법·제도와 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국민안전체험 정책의 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여 국민안전교육 정책에서 교육 대상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이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설명적 차원에서는 국민안전체험관의 교육 대상 구조와 프로그램 운영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분석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법·제도적 기반 및 정책 설계 방식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셋째, 처방적 차원에서는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의 개선 방향과 설계 원칙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통해 국민안전체험관을 국민 모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정책 수단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문제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재난관리 정책의 개념과 체계
체험형 안전교육의 이론적 논의
성인학습이론과 성인 대상 안전교육
시민 초기대응자의 역할과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정책 대상 선정과 설계
안전 거버넌스와 재난안전교육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국가의 전 연령 대상 국민안전체험 정책 국외 사례
제3장
연구 설계
재난안전교육 정책의 법적 기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성인의 실질적 대응 의무
국민안전체험 정책의 대상 구조
제도적 강도 차이
분석 변수 설정
분석기준 및 분류 원칙
연구모형
제4장
연구 결과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실태 및 현황
국민안전체험관 설계 방향
제5장
결 론
결과 요약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그림 1-1] 연구 흐름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안전체험관은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프로그램의 구성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많은 체험관이 초등학생 등 어린이를 주요 교육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재난교육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의 경우 직장 생활 등으로 인해 체험관을 방문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체험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참여 의지가 어린이에 비해 낮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현재의 운영 체계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특정 대상 집단이 어떻게 설정되는가는 정책과 제도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법령이나 제도에서 특정 집단을 명확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대상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다른 집단이 상대적으로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면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다양한 법령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체험형 재난교육의 대상이나 운영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재난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표나 제도적 기준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서 나타나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부족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기획과 제도적 환경과도 관련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민안전체험관의 교육 대상자 구조를 정책과 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구조와 프로그램 편성이 어떠한 제도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안전체험관의 교육 대상 구조는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는가. 둘째,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부족은 어떠한 법·제도적 및 운영상 배경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셋째, 실제 운영 현장에서 이러한 구조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가. 넷째,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 체계는 어떠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는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정책을 단순한 시설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대상 설정, 제도 강도, 전달체계, 운영 유인의 문제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의 출발점이 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법·제도 분석과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재난안전교육 및 재난관리와 관련된 주요 법령을 검토하여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분석 대상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안전교육진흥법」 등 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법령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특성을 분석하여 체험교육 대상자의 구성과 프로그램 유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안전체험관이 실제로 어떠한 연령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 구조에서 나타나는 대상 편중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법·제도 분석과 사례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체험 정책의 설계 방향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실험연구나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분석보다는, 법·제도 분석과 운영 실태 비교를 중심으로 한 정책 설계 연구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과 정책자료, 체험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정보,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적 구조와 운영상의 특징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연구 수행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현행 법령과 최근 공개 자료를 중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체험 공간적 범위는 국민안전체험관 8개소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비교가 가능한 국내 주요 국민안전체험관 8개소를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 분석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HANSUNG UNIVERSITY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재난대응 역량과 체험형 안전교육의 이론적 기반

1)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안전체험관

재난은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발생하며, 그 피해 규모는 사회 구조와 대응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재난관리 정책은 단순히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과 복구에 국한되지 않고, 예방과 대비를 중심으로 하는 사전적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관리 정책의 핵심 목표는 재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재난대응 역량(disaster response capacity)은 개인, 지역사회,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러한 대응 역량은 단순한 지식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재난관리 정책에서는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개인과 지역사회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재난 대응 행동은 단순한 이론 교육만으로 충분히 습득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형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재난 대비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은 개인의 재난 대응 지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체험 중심 교육은 학습자가 재난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행동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안전체험관은 재난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이해될 수 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다양한 재난 상황을 모의 환경에서 체험하도록 하여 국민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형 교육시설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체계와 교육 대상자 설정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난대응역량이 실제 재난관리의 성과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의 체계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호철(2019)의 연구에 따르면, 재난관리 조직의 역량이나 개인의 대비 수준이 높더라도 관련 법·제도적 체계성이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재난관리 성과를 담보하기 어렵다. 이는 국민안전교육 정책 역시 단순히 교육의 양적 확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재난관리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네 단계로 구분되는 재난관리 순환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방은 재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환경 정비를 의미하고, 대비는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과 교육·훈련을 뜻한다. 대응은 재난 발생 직후의 긴급조치와 구조·구급 활동을 포함하며, 복구는 피해 회복과 기능 정상화를 지향한다. 이 가운데 재난안전교육은 특히 대비 단계의 핵심 정책 수단에 해당한다. 이는 재난 발생 이후의 대응 역량이 사고 발생 직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축적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난대응 역량은 개인의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 국가가 모두 일정한 수준의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개인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행동을 습득해야 하고, 가정은 가족 단위의 대피와 응급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는 상호 협력과 공조 체계를 통해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역량이 형

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제도와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안전교육은 재난관리 정책의 부수적 영역이 아니라, 대응역량을 사전에 형성하는 핵심 기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2) 체험형 안전교유의 이론적 논의

체험형 교육은 학습자가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 방식으로, 전통적인 강의 중심 교육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Kolb(1984)는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을 통해 학습 과정이 경험, 성찰, 개념화, 실험의 순환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받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이해하고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는 능동적 존재로 이해된다.

이러한 경험 중심 학습의 특성은 재난안전교육과 같은 행동 중심 교육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난 상황에서는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체험형 교육은 학습자가 재난 상황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행동을 익히는 데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체험 기반 교육은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재난 대응 행동을 학습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재학·장선희(2021)도 비상상황 안전교육에서 가상현실 기반 콘텐츠 모델을 제시하면서, 실감형·몰입형 훈련이 학습자의 참여와 상황 대응 학습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재난 대비 교육 프로그램을 다룬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유사하게 드러난다. Fazeli 등(2024)은 자연재난 분야에서 개인의 준비와 행동훈련을 검토하면서,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행동 기반 훈련이 실제 대비 수준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여러 연구에서는 재난 대비 교육이 단순히 지식 수준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재난 대응 태도와 행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실제 상황을 가정

한 체험형 교육이 이러한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국민안전교육이 단순한 이론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 상황을 가정한 체험과 반복 학습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순한 교육시설이라기보다는 체험형 학습을 기반으로 국민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플랫폼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재난 상황을 모의 환경에서 체험하도록 하는 교육 방식은 재난 대응 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방식과 교육 대상자의 설정 문제는 단순한 프로그램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재난관리 정책 전반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의 국외 연구 동향 역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실전적 재난대비교육의 중요성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Guo 등(2025)은 대중 대상 재난대비교육의 발전 양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에서, 단순 정보 전달형 교육을 넘어 실제 상황을 모사한 시뮬레이션 및 체험 기반 교육이 글로벌 재난안전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재난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고 타인을 구조할 수 있는 성인의 역량 강화가 세계적인 재난관리 흐름과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체험형 안전교육은 강의식 교육과 비교할 때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또는 실제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을 수행해 보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강의식 교육이 안전수칙과 절차를 이해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장점이 있으나, 재난 상황과 같이 긴박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단순한 지식 보유만으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면 체험형 교육은 몸의 움직임, 공간 인식, 상황 판단, 반복 연습을 통해 학습 내용을 행동 수준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난대응 교육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평가된다.

다만 체험형 안전교육이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체험이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오락적 요소에 치우칠 경우, 학습자는 체험 자체에 흥미를

느낄 수는 있으나 실제 행동 역량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체험의 목표와 내용, 반복 구조, 피드백 방식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단발성 체험은 기억에 남는 이벤트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체험형 안전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체험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이 어떠한 학습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있다. 특히 국민안전체험관과 같은 공공 교육시설에서는 체험이 단순한 견학이나 흥미 유발을 넘어 실질적인 대응 행동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성인학습이론과 성인 대상 안전교육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교육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이미 다양한 생활경험과 사회적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 대상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학습자의 경험과 역할 맥락을 반영한 문제해결형·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Lacher(2024)는 국제 시민보호 연구를 검토하면서 재난준비교육이 성인 및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별도의 학습 논리와 전달체계를 필요로 하는 영역임을 지적하였다.

성인학습이론에서는 성인이 자기 주도적 학습자이며, 학습 내용이 자신의 현실 문제와 직접 연결될 때 학습 동기와 효과가 높아진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재난안전교육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인은 가정에서는 보호자, 직장에서는 동료와 고객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책임 주체이며,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으로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교육은 단순히 재난 상황을 '체험'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대응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İnal과 Bahar-Ozvaris(2017)도 재난교육을 교육학적 접근과 안드라고지적 접근으로 구분하면서, 성인 대상 재난교육은 학습자의 경험과 자기주도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성인학습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은 이미 축적된 생활경험을 학습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타인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지식보다는 자신의 현실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습내용에 더 높은 관심과 동기를 보인다. 이와 같은 특성은 재난안전교육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은 사무실 화재나 심정지 상황,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대피 상황, 공동주택 거주자는 주택 화재와 피난기구 사용 등 자신의 생활환경과 연결된 주제에 더 높은 학습 필요성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성인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에 구조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 주체라는 점에서도 어린이와 구별된다. 어린이는 초기에 대피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성인은 실제 재난상황을 파악하여 재난을 수습하거나 대피 등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은 단순한 지식 확인이나 기본적 안전행동 습득 수준을 넘어, 역할 수행과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안전체험관이 이러한 성인의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체험은 성인 대상 실전훈련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는 없다. 어린이의 경우 재난 현장에서 복합적 상황을 통제하거나 타인의 대피를 주도하는 것보다,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이해하며,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는 기초 행동을 습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 재난안전체험은 성인 대상 프로그램처럼 실전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고도화에 초점을 두기보다, 발달단계에 부합하는 흥미와 몰입을 기반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고 기본적인 대응행동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흥미 중심 체험이란 단순한 오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반복 가능한 안전행동의 습관화를 돕는 교육적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정책 설계 방향에서도 핵심

적인 논점이 된다.

그러나 현재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인의 학습 특성과 역할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일부 체험관에서 응급처치나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성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체험형 교육은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성인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여 연령을 넓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성인의 생활 맥락과 사회적 역할을 반영한 별도의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정 내 화재 초기 대응, 가족 대피, 차량 사고 발생 시 초기 조치,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상황 중심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성인이 체험관 교육을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된 학습으로 인식하게 하여 참여 동기와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시민 초기대응자와 지역사회 기반 재난관리

1) 시민 초기대응자의 역할과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현대 재난관리 패러다임은 국가 주도의 하향식(Top-down) 통제와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재난 발생 전후의 피해를 흡수하고 빠르게 본래의 기능으로 복원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1](Resilience)'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은 물리적 인프라의 내구성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호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는 사회적 역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Aldrich, 2012). 재난 발생 직후 구조대(소방, 경찰 등)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이른바 '골든타임' 동안 피해의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현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대응 행동이다.

1) 재난의 충격을 견디고 기본 기능을 유지·회복하는 능력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재난 대응은 크게 개인 스스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자조(自助), 이웃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공조(共助), 그리고 국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공조(公助)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이재은, 2012). 대형 재난 상황에서는 통신망 마비, 도로 파손, 동시다발적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국가 구조 인력의 즉각적인 투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에 있는 성인 시민들이 초기 화재 진압, 부상자 응급처치, 노약자 및 어린이의 대피 유도 등을 수행하는 '시민 초기대응자[2](Citizen First Responder)'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 FEMA의 CERT 기본훈련은 일반 시민이 재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을 돕도록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성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훈련 가능한 초기대응 주체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어린이는 재난 현장에서 보호받고 대피해야 할 우선적인 대상인 반면, 성인은 상황을 인지하고 물리적 조치를 취하며 타인의 피난을 지휘해야 하는 주체적 성격을 띤다. 성인이 시민 초기대응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안전 수칙 암기를 넘어, 복합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행동 훈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재난안전교육 정책이 어린이 중심으로 편중될 경우,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의 근간이 되는 '자조'와 '공조(共助)' 역량은 심각한 공백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재난위험의 이해와 재난위험 거버넌스[3]의 강화, 대비 역량의 제고를 강조한 UNDRR의 센다이 프레임워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국민안전체험관이 성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형 실습을 제공해야 하는 중대한 정책적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시민 초기대응자의 역할은 단순히 재난 발생 직후의 일시적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지역사회가 재난에 어떻게 대비하고, 위기를 어떻게 흡수하며, 이후 얼마나 빠르게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가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은 공공기관의 대응 역량만으로 형성되는

2)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서 대응하는 주체

3)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하고 조정하는 운영체계

것이 아니라, 주민 개개인이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투자로 이해될 수 있다.

2) 안전 거버넌스와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교육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의 질이 단순히 콘텐츠의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교육을 기획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며, 교육 후 반복 훈련과 생활 속 적용을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따라 교육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민안전체험관과 같은 체험형 시설은 단일 기관의 독자적 운영만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기 어렵고, 중앙정부, 소방기관, 지자체, 학교, 지역사회 조직이 서로 연결될 때 더 큰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 영역이다. 재난은 발생 양상이 복합적이고 대응 과정 역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난안전교육 또한 중앙정부, 소방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지역사회 조직 등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을 전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안전체험관과 같은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시설은 단순한 교육 장소를 넘어 실제 정책 집행의 거점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 내용의 구성뿐 아니라 교육 대상자 모집, 참여 전달체계, 기관 간 역할 분담까지 포함하는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공공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가 상호 작용하며 협력하는 운영 체계를 뜻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거버넌스는 더욱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 조정, 소방 및 재난관리 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 교육기관의 정기적 교육 기능, 지역사회의 자율적 대응 능력이 함께 결합될 때 비로소 실질적

인 대응 체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안전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의 우수성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경로로 교육에 참여하며 어떠한 기관이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김필 외 1명(2023)은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를 행위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전달방식의 정합성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의 전 생애주기형·참여형 안전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난안전교육은 형식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대상별로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해 운영되는 경향을 보인다. 어린이의 경우 학교 교육이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가능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직장, 민방위, 평생학습,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 여러 경로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된 전달체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수요 확보와 집단 참여가 용이한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도적 연계 장치가 부족할 경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은 단순한 시설 운영 정책이 아니라, 재난안전교육의 전달체계와 기관 간 협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먼저 학교 중심 전달체계가 어떻게 자리잡은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성인 대상 전달체계가 갖는 한계를 검토한 뒤, 마지막으로 소방기관·교육기관·지역사회 간 협력 구조의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가) 학교 중심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교육은 여러 교육 대상자 가운데서도 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학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육 조직이며, 어린이는 일정한 연령대별 체계적으로 조직된 집단이라는 점에서 안전교육을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시하기에 유리한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재난안전교육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학교 교육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발전해 왔다.

학교 중심 전달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 등은 제도적으로 구분된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적 관리 체계가 분명하고, 교육 대상자도 연령과 학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교육 정책은 어린이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할 때 비교적 명확한 집행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연계된 구조 속에서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규 교육과정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제도적 틀 안에서 국민안전체험관 방문이나 체험형 프로그램 참여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집단적 동원과 반복 학습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어린이들은 담임교사와 학교 행정체계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동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체험관 프로그램 역시 학년별·학급별 단체 방문 형태로 운영되기 쉽다. 이는 국민안전체험관 입장에서도 참여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실제로 많은 국민안전체험관이 학교 단체를 주요 이용층으로 삼고 있으며, 프로그램 안내에서도 초등학생 이상, 청소년, 학생 단체 체험과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 중심 전달체계가 체험관 운영에서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 중심 전달체계는 재난안전교육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담보한다는 점에서도 장점을 가진다. Selby와 Kagawa(2012)가 여러 국가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은 재난위험경감 교육을 제도적으로 반복·지속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전달 기반으로 제시된 바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단발성 교육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기 어렵고, 반복적인 노출과 체험을 통해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정기적인 수업과 학사일정을 기반으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교육은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특히 연령별 발달 수준에 맞추어 교육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학

교는 매우 효과적인 전달 기반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 중심 전달체계는 동시에 재난안전교육의 대상 편중을 강화할 가능성도 가진다. 어린이 대상 교육이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을수록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기획·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에서도 학교 단체 수요를 중심으로 시간표와 정원을 설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예약방식 등이 어린이 친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 결과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제도적 필요성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편성 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학교 중심 전달체계는 재난안전교육의 안정적 집행 기반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안전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어린이 중심 구조가 과도하게 강화되지 않도록 보완적 장치를 함께 고려 해야 한다.

나) 성인 대상 전달체계의 한계

어린이 대상 재난안전교육이 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전달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안전교육은 전달체계가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제도적 일관성이 약한 특성을 지닌다. 성인은 어린이와 달리 단일한 제도적 공간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직장, 가정, 지역사회, 민방위, 평생학습, 자원봉사 조직 등 다양한 생활 영역에 분산되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교육은 교육 필요성에 비해 실제 집행 경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첫째, 성인 대상 교육은 참여 조직화의 어려움을 가진다. 어린이는 학교라는 조직을 통해 집단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성인은 직업, 생활시간, 거주 지역, 가족 상황 등이 서로 달라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를 조직하기 어렵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평일 주간 시간대에 체험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나 비정규 노동자, 돌봄 책임을 가진 성인, 고령층 등은 각기 다른 이유로 참여 제약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성인의

생활 조건이 다양하다는 점은 곧 성인 대상 교육정책이 획일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성인 대상 재난안전교육은 법·제도적 연계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어린이의 경우 학교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비교적 분명하게 규정된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안전교육은 대부분 일반적 권고나 포괄적 정책 목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민방위 교육, 직장 내 산업안전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제도가 존재하지만, 이들은 각각 다른 부처와 제도에 의해 운영되며 국민안전체험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은 필요성에 비해 실제 참여 기반이 약한 상태로 남게 된다.

셋째, 성인 대상 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책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수요 예측이 쉽고 집단 참여가 가능하며 운영 실적을 확보하기에도 유리하다. 반면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홍보, 참여 유도, 시간대 조정, 프로그램 차별화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운영기관은 제한된 자원 안에서 상대적으로 집행이 용이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의 구조적 배경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성인 대상 교육은 내용 설계 측면에서도 별도의 접근이 요구된다. 성인은 단순한 안전지식의 전달보다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해결형 학습에 더 높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가정 내 화재 초기 대응, 고령자 대피 보조, 직장 내 응급상황 대처, 다중이용시설 대피 유도, 차량 사고 시 초기 조치 등은 성인에게 현실적인 교육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체험관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성인의 역할 맥락을 충분히 반영한 체험형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성인 대상 전달체계의 문제를 단지 참여 경로의 부족이 아니라 내용 설계의 미흡과도 연결된 과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성인 대상 전달체계의 한계는 참여자 개인의 관심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인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부족하고, 운영기관 역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유인을 충분히 갖기 어려운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인을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실질적 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틀안에서 별도의 연계 경로를 마련하고 생활 맥락에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며 참여 접근성을 개선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 소방기관·교육기관·지역사회 협력 구조

재난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소방기관,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조직 등이 상호 연계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반복적 훈련과 실제 행동 능력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여러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는 구조 속에서 추진될 때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국민안전체험관은 이러한 협력 구조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우선 소방기관은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의 핵심 주체로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소방기관은 화재, 구조, 구급, 재난 현장 대응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제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체험형 안전교육의 내용 구성과 실습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실제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을 교육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체험 프로그램이 단순한 견학형 활동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국민안전체험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앞에서 언급한 8개의 국민안전체험관 모두 소방기관이 체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기관은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안정적으로 체험관과 연결하는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는 이미 정기적 교육과정과 단체 체험활

동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체험관 프로그램을 제도권 교육과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기관은 어린이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 교직원 안전연수 등으로 체험형 안전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즉 교육기관은 단순한 어린이 모집 창구를 넘어 안전문화 확산의 중간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조직은 성인 대상 전달체계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재성(2021) 역시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과 참여 구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성인의 경우 학교와 같은 단일 전달경로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부서, 민방위 담당 부서, 주민자치센터, 자율방재단, 통·이장 협의회, 지역 기업체,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참여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과 체험관 프로그램을 일부 연계하거나, 주민 대상 생활안전 프로그램과 체험형 훈련을 결합하는 방식은 성인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과 연계하여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국민안전체험관은 생활밀착형·실천형 안전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 단위 참여를 매개로 한 협력 구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교육은 어린이와 성인을 분리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가족이 중요한 대응 단위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 고령 가족을 고려한 가정 대피 훈련, 주택 화재 대응과 응급처치 프로그램 등은 세대 간 학습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 체험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협력 구조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결국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험관을 단순한 시설 운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방기관의 전문성, 교육기관의 전달력, 지역사회의 참여 기반을 연결하는 공공 안전교육 플랫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가 형성될 때 어린이 중심으로 편중된 현재의

운영 체계를 보완하고,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참여하는 보다 균형 있는 재난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운영정책 대상 선정과 설계

정책 기획 과정에서 정책 대상(target population)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정책의 방향과 집행 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Schneider와 Ingram(1993)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정책 대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정책 도구와 제도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정책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강행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정책 집행은 보다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정책 대상이 포괄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정책 집행은 행정적 재량에 크게 의존하게 되며, 실제 정책 운영 방식 역시 기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대상 설정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행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정 집단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설정될 경우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드러난다. 반대로 정책 대상이 포괄적이거나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되거나, 다른 집단은 정책 기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정책 의도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 정책에서도 이러한 정책 대상 설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에서는 재난안전교육의 대상을 '국민'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는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국민안전체험관과 같은 체험형 교육시설의 경우 프로그램 대상과 운영 방식이 정책 기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의 교육 대상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상 설정과 법과 제도 및 강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정책 대상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법령에 대상 집단의 이름을 적시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특정 집단이 정책적으로 명확하게 지명될 경우, 그 집단을 위한 별도의 예산, 프로그램, 운영 기준, 전달체계가 함께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상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될 경우, 실제 정책 집행에서는 제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동원이 쉬운 집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에서 어린이는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을 바탕으로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기능하는 반면, 성인은 제도상 포괄적 범주의 일부로만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의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 5 절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국외 운영사례

1) 국민안전체험관 관련 선행연구 검토

국민안전체험관 및 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대체로 체험형 안전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 그리고 재난안전교육 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과 체험형 교육의 장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해 왔으며, 국민안전체험관이 단순한 전시·체험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국민안전체험관의 교육 대상자 구조를 정책 대상 설정과 제도 강도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한계도 드러난다.

첫째, 체험형 안전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재난안전교육에서 체험기반 학습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체험형 안전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 비해 학습자의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이며, 실제 재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 능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김아연(2017)은 국민안전체험관이 국민의 재난 대비 능력과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장치라고 보았으며, 체험 중심 교육이 행동 변화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치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강희조 외 3명(2023)은 국민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면서, 재난안전교육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제 대응 행동을 익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본 연구가 체험형 안전교육의 정책적 필요성을 전제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둘째,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체험관의 운영 현황,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 시설의 지역적 분포, 운영상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성일 외 2명(2015)은 국내외 재난안전체험관 사례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체험형 안전교육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운영 내용의 충실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요한 외 1명(2017)은 전국 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특성을 분석하여 각 기관의 프로그램 유형과 운영 체계를 비교하고, 향후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두준 외 1명(2016)은 국내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면서 지역 간 시설 편차, 프로그램 구성의 한계, 운영 방식의 제약 등을 지적하였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주선미(2020)는 소방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교육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는 시설의 물리적 확충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의 부재가 체험관 운영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즉, 공급자 중심의 일방향적 운영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정책 대상(성인, 직장인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민안전체험관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본 연구의 사례 분석에도 일정한 참고 틀을 제시한다.

다만 기존의 운영 연구는 체험관의 전반적 현황이나 프로그램 개선 방

향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교육 대상자가 누구를 중심으로 규정되는지, 특정 연령층 편중이 어떠한 정책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옥철(2016)은 국내 안전교육 관련 콘텐츠를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특정 연령층에 콘텐츠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과 다른 연령층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운영상의 선택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적 편중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자로 설정한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부족 현상이 제도적 구조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운영 연구는 체험관의 현황 파악에는 유용하지만, 정책 차원의 대상 구조 분석으로까지 나아가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재난안전교육 정책과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보다 넓은 정책 체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상현(2016)은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 분석을 통해 재난 대응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간 협력 구조가 핵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변성수(2018)는 미국, 캐나다, 일본의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에서 민관 협력과 제도적 연계 구조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을 단순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다층적 행위자가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산물로 이해해야 한다는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 및 거버넌스 연구 역시 국민안전체험관의 교육 대상자 구조 자체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드물다. 다시 말해 기존 연구는 체험형 교육의 효과, 운영 개선의 필요성,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성은 비교적 충분히 논의하였으나, 어린이 중심 전달체계가 왜 강하게 형성되고 성인 대상 전달체계는 왜 상대적으로 취약한가를 정책 대상 설정과 제도 강도의 차이로 설명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안전체험관에서 나타나는 대상 편중 현상을 단순한 운영상의 선택이 아니라 구

조적 문제로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기존 선행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과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 교육적 효과, 운영상 개선과제, 정책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다수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효과성 또는 체험관 운영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성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은 제도적 구조가 실제 프로그램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어린이 중심 안전체험 운영의 한계를 제목이나 핵심 연구문제로 직접 제기한 연구도 많지 않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는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아동·어린이 중심의 운영 편중과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상대적 부족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중심 안전체험 운영의 구조적 한계를 독립적인 연구문제로 설정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중심 전달체계의 제도적 안정성과 성인 대상 전달체계의 상대적 취약성이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실제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사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 대상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제도적 위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을 단순한 운영 현황의 차원이 아니라 정책 대상 설정, 제도 강도, 전달체계, 거버넌스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이 어린이 중심 구조를 넘어 성인을 포함한 생애주기 기반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떠한 설계 방향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주요 국가의 국민안전체험 운영정책 사례

국민안전체험관의 대상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미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한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가) 일본의 방재관(防災館) 운영 체계

일본은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가 높고, 이에 따라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재난안전교육이 비교적 잘 발달해 있다. 특히 도쿄소방청이 운영하는 도민방재교육센터(이하 방재관)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 가족 단위 방문객, 직장인 및 방재관리자를 포괄하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일본 방재관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견학이나 흥미 위주의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재난 상황에서 요구되는 대응행동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는 실전형 프로그램 운영에 있다. 예를 들어 소화기 사용법, 연기 속 대피, 지진체험과 같은 기본 프로그램 외에도 자위소방대 훈련, 직장 내 초기 진압 시뮬레이션, 고령자 동반 대피 훈련 등 성인이 실제 생활과 직장에서 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재난 상황을 상정한 체험이 운영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본의 재난정책이 단순히 국가와 행정기관의 대응 역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사회가 재난 발생 초기부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위에서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의 방재교육은 '공조(公助)'를 넘어 개인의 '자조(自助)'와 지역사회의 '공조(共助)'를 함께 강조하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재관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기초 안전행동 교육의 장인 동시에, 성인에게는 실질적인 초기대응 능력과 생활 속 재난대비 역량을 기르는 훈련 공간으로 기능한다.

일본 사례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어린이 체험은 흥미와 참여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안전행동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되, 성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전형 체험과 역할 중심 교육을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방재관이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안전과 지역사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 교육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국민안전체험관 역시 특정 연령층 중심의 운영을 넘어 성인과 어린이를 함께 포괄하는 생애주기 기반 안전체험 정책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1] 도쿄 재난안전체험 공식 소개 자료

출처 : 동경소방서 홈페이지

나) 미국의 지역사회재난대응팀(CERT) 연계 교육

미국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을 총괄하는 국가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기반 대응역량 강화를 중요한 정책 요소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FEMA는 시민들이 재난 발생 시 스스로를 보호하고,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차원의 초기 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체험형 안전교육은 우리나라와 같이 독립된 '안전체험관' 건물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 소방서, 지역 재난관리센터, 커뮤니티 교육시설 등을 거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미국의 경우 체험형 안전교육이 특정 시설의 견학이나 단발성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적인 훈련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CERT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성인을 단순한 교육 수혜자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재난대응 역량을 갖춘 지역사회 초기대응 주체로 양성한다는 점이다. 참여자들은 며칠에 걸친 집중 훈련을 통해 화재 초기 진압, 기본적인 응급의료 지원, 가벼운 수색 및 구조, 재난심리 대응, 팀 운영 및 현장 안전관리 등을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시나리오 기반 훈련으로 이루어지며, 그 자체가 고도의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미국의

CERT는 어린이 대상 체험관 프로그램처럼 흥미와 참여를 중심으로 구성되기보다, 성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역할 수행 역량을 기르는 실전형 교육모델에 가깝다.

이러한 미국 사례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체험형 안전교육은 어린이의 견학이나 놀이 중심 프로그램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성인의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실전 훈련장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인을 단순한 참여 가능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의 시민 초기대응자이자 협력적 안전 주체로 전제하고 교육체계를 설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안전체험관 역시 특정 연령층 중심의 운영을 넘어, 성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참여형·실천형 안전교육 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2] FEMA 공식 CERT 소개 페이지

출처 : FEMA 공식 홈페이지

다) 싱가포르의 체험·참여 연계형 재난안전교육

싱가포르는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SCDF)를 중심으로 체험형 안전교육과 지역사회 기반 재난대비교육을 연계하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SCDF는 Emergency Preparedness Centre(EPC), Civil Defence Heritage Gallery(CDHG), Fire Station Open House 등을 운영하며, 일반 시민과 학생, 가족 단위 방문객이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 관련 내용을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PC는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이 가능하며, CDHG는 일반 방문과 가이드 투어가 모두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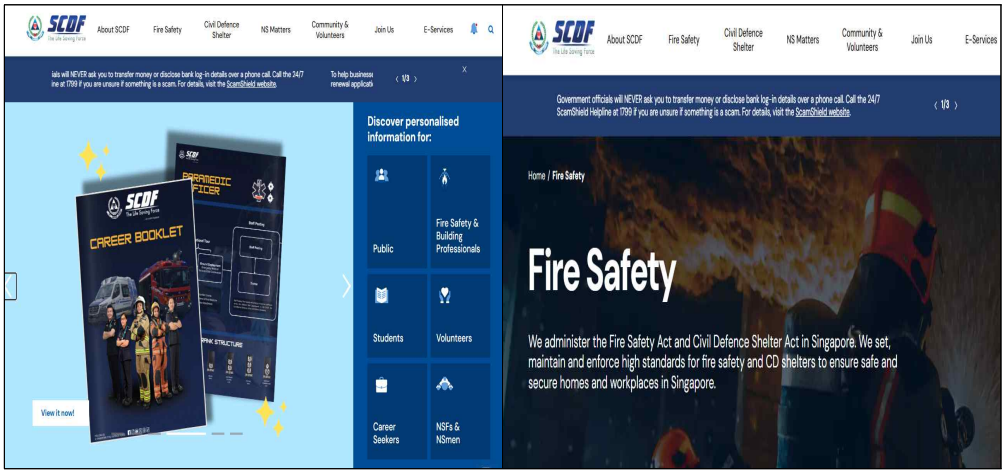
또한 Fire Station Open House 역시 정기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소방시설과 대응절차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전시 관람을 넘어 체험과 참여를 통해 안전지식과 대응행동을 생활화하려는 공공 안전교육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싱가포르 사례의 특징은 체험관 운영이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 대상 흥미형 체험과 일반 시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대비교육이 함께 연결된다는 점이다. SCDF는 community programmes를 통해 일반 대중에게 민방위 및 응급대응 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Responders Plus Programme(RPP)를 통해 응급처치, CPR-AED, 화재대응과 같은 핵심 생명안전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는 지역사회 차원의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되며, 청소년과 성인을 포함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어린이에게는 흥미와 몰입을 기반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하면서도, 성인에게는 지역사회 초기대응자이자 협력적 안전 주체로서의 역할을 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싱가포르의 운영 방식은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즉 어린이 대상 안전체험은 흥미와 몰입을 기반으로 기초적인 안전행동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되, 성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천형·참여형 교육 경로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차원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싱가포르 사례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단순한 시설 운영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기관 주도의 체험관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결합함으로써 전 연령층을 포괄하는 재난안전교육 체계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3] SCDF 공식 안내 페이지

출처 : SCDF 공식 홈페이지

HANSUNG UNIVERSITY

제 3 장 운영실태

제 1 절 재난안전교육 운영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1) 재난안전교육 운영정책의 법적 기반

우리나라 재난안전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을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두 법령은 재난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해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0조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재난안전교육 정책에서 학교 교육 체계가 핵심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재난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은 학교 교육 체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교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즉 국민안전체험관은 제도적으로 안전교육 정책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규정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령에서는 체험관의 설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체험형 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 어떤 연령층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는 법령 차원에서 명확한 정책 목표나 운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역시 비슷한 구조를 보인다. 이 법은 재난관리 체계 전반을 규정하는 기본 법령으로,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66조의4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안전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서는 국민이 안전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체험시설 설치 자체는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이나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정리하면, 현재 국민안전체험관과 관련된 법·제도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 자체는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대상자의 구체적인 설정이나 프로그램 구성 기준과 같은 부분에서는 비교적 포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징은 실제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체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현재의 법체계는 안전교육의 필요성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학교 교육과 같은 제도화된 영역에 비해 체험형 안전교육,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교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국민안전체험관이 정책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육 대상과 운영 기준이 체계적으로 구체화되지 못하

는 배경이 될 수 있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성인의 실질적 대응 의무

재난안전교육의 근거는 앞서 살펴본 기본 법령뿐만 아니라, 실제 국민의 재난 대응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소방관계법령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 유도의 막중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법에 따라 건물의 관리 주체와 점유자인 성인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는 물론, 해당 건물 내의 인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할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 규정된다.

특히 다수의 국민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생활공간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내 소방시설(소화기, 완강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인 소방 점검이 의무화되어 있을 만큼 주거 공간의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일반 성인들이 자신이 거주하거나 일하는 공간의 재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유사시 즉각적으로 소방시설을 전개하여 대응해야 함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방관계법령은 성인 국민을 재난 현장의 핵심적인 초기 대응자이자 안전관리 의무자로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법적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길러주어야 할 국가적 인프라인 국민안전체험관의 교육 대상자는 어린이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 성인에게는 실전 상황에 준하는 막중한 행동 의무와 관리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체험형 공공 교육 시스템의 접근성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현재 정책 기획의 중대한 제도적 모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령이 요구하는 성인의 재난 대응 의무 수준에 부합하도록, 체험관의 교육 대상자와 프로그램 역시 성인 중심의 실전 훈련 체계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성인의 법적 대응 의무는 단순한 추상적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관계인

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뿐 아니라 화재 시 인명 대피와 초기 대응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각종 사업장 등 생활공간 전반에서 적용된다. 그러나 현행 체험형 안전교육 체계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성인에게 충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다시 말해 법은 성인에게 대응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책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 체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역설이 존재한다.

3) 국민안전체험 운영정책의 대상 구조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 교육 대상자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에서 일정한 특징이 드러난다.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을 비교적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재난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학교 교육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국민'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교육 대상자 집단이나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과적으로 재난안전교육 정책이 학교 중심으로 제도화되는 경향을 갖게 되는 배경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정책 대상 설정 이론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자주 언급된다. 정책 기획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될 경우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정책 대상이 포괄적인 범주로만 제시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거나, 다른 집단은 정책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민안전체험 정책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

린이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 안정적인 참여 구조를 형성하기 쉬운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교육은 별도의 제도적 장치나 참여 경로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정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현행 국민안전체험 정책의 대상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어린이가 명확하고 조직화된 정책 대상으로 기능하는 반면 성인은 포괄적 범주 속에 머무르는 이중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구조는 성인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와 프로그램 설계에서 주변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의 성인 대상 프로그램 부족은 단순한 수요 문제라기보다, 제도상 성인이 “있지만 없는 대상”으로 위치 지워진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4) 제도적 강도 차이

정책 기획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 방식은 정책 집행의 강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와 같이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강행 규정은 정책 집행을 보다 강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할 수 있다’와 같은 임의 규정은 정책 시행 여부나 범위가 행정적 판단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남겨 두게 된다. 이처럼 규정 방식의 차이는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중요한 배경이 된다.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검토하면 이러한 제도 강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은 법령에서 교육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교육 실시 역시 의무 규정의 형태로 명시되어 있다. 그 결과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재난안전교육이 비교적 안정적인 구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

반면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경우 법령에서 그 필요성과 추진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포괄적인 수준에 머

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 임의 규정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역시 별도의 정책 대상이나 참여 구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 강도 차이는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학교 중심의 안전교육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은 정책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구조 속에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 강도의 차이는 결국 정책의 실행 정도와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학교 안전교육은 반복적 시행과 성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임의 규정에 기반한 체험형 안전교육은 기관의 재량과 자원, 운영 여건에 따라 수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은 별도의 의무 규정이나 연계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보다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 강도 차이는 단순한 법령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교육 대상 구조와 운영 체계의 편중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분석 틀 및 분석기준

1) 분석 변수 설정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제도적 특성과 운영 체계를 함께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 변수를 설정하였다.

첫째, 법·제도 측면에서는 정책 대상의 명확성, 규정 방식의 강도, 운영 기준의 구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정책 대상의 명확성은 특정 연령층이나 집단이 법령상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시되었는지를 뜻한다. 규정 방식의 강도는 해당 정책이 의무 규정인지 임의 규정인지 여부를

뜻하며, 운영 기준의 구체성은 설치·운영·프로그램 대상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명시되었는지를 뜻한다.

둘째, 운영 체계 측면에서는 운영 주체, 예약방식, 운영 시간, 체험 정원, 프로그램 구성, 참여 대상 등을 분석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는 국민안전체험관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특정 집단의 참여에 구조적 제약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 대상 구조 측면에서는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성인 대상 프로그램, 혼합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여 각 체험관의 프로그램이 성인을 독립적 교육 대상자로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여기서 혼합 대상 프로그램은 성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성인을 중심 정책 대상으로 설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뜻한다.

이와 같은 분석 변수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을 단순히 프로그램 수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기획과 실제 운영 체계 간의 연계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로 활용되었다.

2) 분석기준 및 분류 원칙

분류 기준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한 참여 가능 여부와 정책 대상으로서의 독립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이상' 또는 '11세 이상'과 같은 기준은 성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을 주요 교육 대상자로 설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안내 문구에서 일반 시민, 성인, 종사자, 교직원 등 성인을 독립적인 집단으로 명시한 경우에 한 해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어린이, 유아, 학생, 청소년, 초등학생 등의 표현이 중심적으로 사용된 프로그램은 어린이·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특정 연령 이상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교육 내용 역시 성인 특화형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합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성인의 참여 가능성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실제 정책 분석에서는 "참여할 수 있음"과 "정책적으로, 대상

으로 설정됨"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에서 성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제 3 절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

1)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방식 및 프로그램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국민안전체험관 가운데 공개된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프로그램 정보 확인이 가능한 8개 체험관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체험관은 보라매안전체험관, 광나루 안전체험관,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충남 안전체험관, 충북 안전체험관,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부산119시민안전체험관이다. 이들 체험관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국민안전체험시설로, 지역별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구성을 비교해 판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자료는 각 체험관 홈페이지에 제시된 운영 주체, 예약 방식, 운영 일정, 회차별 체험 인원, 프로그램 명칭, 체험 시간, 체험 대상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대상 연령을 기준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먼저 영유아, 어린이, 학생 등 어린이·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어린이·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교직원, 일반 시민, 종사자, 성인 등을 별도의 교육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 이상', '11세 이상', '중학생 이상'과 같이 성인도 참여할

수 있지만 성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혼합 대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기준은 단순히 참여 가능 여부만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하기보다는 실제 정책 기획 과정에서 성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교육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체험관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는 연령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러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성인을 중심 대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8개 체험관은 각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공공 안전체험시설로서,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구성, 예약 방식, 교육 대상, 지역적 특성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석 가치가 있다. 물론 이들 체험관만으로 전국 모든 체험관의 운영 실태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구조를 비교할 수 있는 대표 사례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전반적 특징과 구조적 편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

2) 국민안전체험관 접근성 현실태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대상 구조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요소는 운영 접근성이다. 동일한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운영 방식이 특정 집단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실제 참여 구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인 참여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체험관의 운영 일정, 예약방식, 개인·단체 이용 가능성, 주말 이용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 대상 체험관은 대체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온라인 사전 예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일부 체험관은 현장 접수를 병행하거나 고령자 전화 예약을 허용

하고 있었으나, 전반적인 예약 체계는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방식은 운영 효율성과 이용자 관리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예약 일정 조정이 어려운 직장인에게는 이용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회차별 정원제는 체험의 질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성인 참여 구조 측면에서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어린이 단체는 학교 차원에서 집단 예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성인은 개인 또는 소규모 단위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방식의 예약 체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특히 평일 주간 중심 운영은 직장인 성인의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주말 운영이 있더라도 예약 경쟁이 높은 경우 실제 참여 기회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운영 접근성 문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실과 결합될 때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즉 성인을 위한 독립적 프로그램이 적을 뿐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도 성인 개인 참여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 잡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안전체험관의 성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용의 개선뿐 아니라 운영 방식의 접근성 개선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안전체험관 기본 구성 현황

분석 대상 8개 체험관의 기본 운영 현황은 <표 4-1>에 정리했다.

<표4-1> 국민안전체험관 기본 운영 현황

체험관	위치	운영주체	예약방식	비고
보라매 안전체험관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온라인 사전 예약	잔여석 현장예매 가능
광나루 안전체험관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온라인 사전 예약	잔여석 현장예매 가능
경기도국민안전 체험관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온라인 사전 예약	사이버 안전체험관 운영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남도 소방본부	온라인 사전 예약	잔여석 현장예매 가능
충북안전체험관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소방본부	온라인 사전 예약	잔여석 현장예매 가능 고령자 전화예약 가능
빛고을국민안전 체험관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온라인 사전 예약	-
대구시민안전테 마파크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소방본부	온라인 사전 예약	-
부산119안전체 험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 소방재난본부	온라인 사전 예약	잔여석 현장예매 가능 고령자 전화예약 가능

<표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분석 대상 체험관은 모두 소방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예약 방식 역시 대부분 온라인 사전 예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부 체험관에서는 예약 잔여석에 한해 현장 접수를 허용하거나, 충북 및 부산 체험관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전화 예약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운영 방식은 디지털 예약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체험 인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거나 예약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성인이나 고령층에게는 이용 과정에서 일정한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분석 대상 체험관의 운영 주체가 모두 공공기관인 소방재난본부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안전체험관이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시설이라기보다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체험관의 교육 대상자 설정이나 프로그램 구성, 운영 시간과 같은 요소들은 개별 기관의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와 행정 운영 방식의 영향을 함께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제 4 절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 구성과 주요내용

1) 체험 프로그램 구성 현황

<표 4-2>는 운영 일정과 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표4-2>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일정 및 프로그램 구성

체험관	운영일정	체험인원	체험프로그램	체험시간	체험대상
보라매 안전체험관	매주 화~금 및 주말, 공휴일 운영	회차별 15~30명	재난체험 (지진, 태풍, 화재대피, 교통사고)	60분 이내	초등학생 이상
			일반응급처치	60분	초등학생 이상
			전문응급처치(이론)	120분	교직원, 13세 미만 대상 교육 종사자
			전문응급처치(실습)	120분	
			어린이안전체험	60분	2020년~2021년생
			소방시설교육	60분	중학생 이상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투어	80분 이내	초등학생 이상
광나루 안전체험관	매주 화~금 및 주말, 공휴일 운영	회차별 30명 내외	재난안전체험	90분	2021년생 이상
			일반응급처치	60분	초등학생 이상

			전문응급처치	4시간	교직원, 13세 미만 대상 교육 종사자
			소방관 진로체험	60분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새싹어린이 안전체험	60분	2020년~2022년생
경기도국민 안전체험관	매주 화 ~ 금 및 주말, 공휴일 운영	평일 15명/주말 20명	어린이 안전동화마을	90분 (1~4부 운영)	5세~9세
			생활.산업안전		10세 이상
			교통안전		
			재난안전		
			캠핑안전		
		20명	응급처치 전문체험장	60분	
		50명	어린이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	4시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매주 화~금 및 주말, 공휴일 운영	평일 15명/주말 15명	어린이 체험	1시간	4~7세
		평일 60명 /주말 15명	사회재난체험		초등학생이상
			자연재난체험		초등학생 이상
		평일 15명 /주말 15명	응급처치실습		초등학생 이상
		평일 15명	소방시설실습		중학생 이상
		평일 28명 /주말 28명	영상관	15분	4세 이상
충북 안전체험관	매주 화~금 및 주말, 공휴일 운영	평일 20명 /주말 12명	어린이 안전체험	60분	5세~7세

		평일 15명 /주말 12명	생활안전체험	30분	초등학생 이상
			지진안전체험	30분	초등학생 이상
		평일 15명 /주말 8명	화재안전체험	60분	초등학생 이상
		6명~20명	심폐소생술 기초과정	60분	초등학생 이상
		100명 이내	이동안전체험 차량	120분	6세~13세
		50회선 이내	온라인 안전교육	30분	5세 이상
빛고을국민 안전체험관	매주 화~금 및 주말, 공휴일 운영	20명	산악안전	70분	초등학생 이상
			호우안전		
			지진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응급안전		
			보건안전		
			새싹안전	60분	4세~6세
		30명~100명 내외	이동안전체험 차량	60분	4세~초등학교 3학년 이하
		20명 이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2시간(실습)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0명 이내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	80분(기초), 180분(심화)	11세 이상 일반인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매주 화~금 및 주말, 공휴일 운영	20명	지하철 안전체험	60분	11세 이상
		평일 8명/주말 12명	교통안전 체험	60분	8세이상

HANSUNG UNIVERSITY

		50명	미래 소방관 체험	60분	8세 이상
		제한 없음	소방기록 전시관	자유관람	제한 없음
			어린이 제품 안전 체험관		
			폭염. 미세먼지 체험장		
		14명	위기 대응체험	60분	8세 이상
		20명	응급처치	60분(기초), 120분(심화)	11세 이상 일반인
부산119안전 체험관	매주 화~금 및 주말, 공휴일 운영	20명	새싹 안전마을	60분	2020~2022년생
			전기 안전	30분	초등학생 이상
			도시 안전	60분	
			생활 안전		
			자연 안전		
			구급 안전		
			화재 안전		

표를 종합하면 분석 대상 8개 체험관은 모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과 주말, 공휴일에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난다. 운영일 자체는 비교적 폭넓게 설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회차별 정원제 방식으로 운영되며, 체험 인원은 적게는 8명에서 많게는 약 100명 내외까지 다양한 규모로 갖추어져 있다. 프로그램 내용 역시 재난체험,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화재안전, 지진안전, 어린이 안전체험, 종사자 교육 등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체험관마다 일정한 프로그램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검토하면 단순히 프로그램 수의 많고 적음보다 프로그램 대상 연령이 어떻게 규정되는가가 중요한 특징으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보라매와 광나루 체험관은 '재난체험', '일반응급처치', '소방관과 함께하는 119투어', '새싹 어린이 안전체험', '소방관 진로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 또는 유아·학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자으로 명시한 프로그램은 '전문응급처치'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 또한 일반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교직원이나 어린이 교육 종사자 등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에 가깝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역시 '어린이 안전동화마을', '생활·산업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캠핑안전', '응급처치 전문체험장', '어린이 안전관리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대상 구성을 보면 어린이 체험과 종사자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남과 충북 체험관에서도 '어린이 체험', '생활안전체험', '지진안전체험', '화재안전체험', '응급처치실습', '심폐소생술 기초과정'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이상' 또는 어린이·학생 중심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은 분석 대상 중 가장 많은 11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악안전', '호우안전', '지진안전', '화재안전', '생활안전', '응급안전', '보건안전', '새싹안전', '이동안전체험차량',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 '대한심폐소생협회 교육'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그램 구성 자체는 비교적 다양한 편이지만,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자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교육'과 '11세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정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 구조에서는 여전히 어린이 중심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와 부산119안전체험관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체험관 모두 지하철 안전체험, 교통안전 체험, 미래 소방관 체험, 새싹 안전마을, 전기안전, 도시안전, 생활안전, 자연안전, 구급안전, 화재안

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성인을 독립적인 주요 교육 대상자로 제시한 프로그램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체험관마다 프로그램 수나 구성 방식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프로그램 대상의 설계 방식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린이 중심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민안전체험관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그램 대상 구조에서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 체계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체험

가) 소화기 진압체험

소화기 진압 체험은 화재 발생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소화기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모의 화재 상황에서 직접 소화기를 사용해 봄으로써 초기 진압 능력을 배양하는 안전교육이다.

국민안전체험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교육은 소화기의 종류와 구조, 사용 전 점검 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등을 포괄한다. 참여자는 실제와 유사한 모의 환경에서 소화기를 조작해 봄으로써 화재 발생 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전 역량을 기르게 된다. 체험교육은 소화기의 명칭, 구조, 사용 순서에 대한 이론적 설명과 시범으로 시작되며, 이후 참여자가 안전핀 제거, 노즐 방향 조정, 손잡이 작동, 화점 하부를 향한 분사 등을 직접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실습 과정에서는 훈련용 소화기, 물소화기 또는 전자식 체험 장비 등을 활용하여 안전거리 유지, 풍향 고려, 집중 분사, 잔불 확인 등 실제 상황에 요구되는 행동 요령을 익히게 된다. 이러한 소화기 진압 체험은 연령에 관계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 가능하며, 학교,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초기 화재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 재난 현장에서의 초기 진압 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교육적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소화기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브릿지 경제, 데일리 경북뉴스

나) 농연장 탈출체험

농연장 탈출 체험은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확산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피난하는 방법을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다. 화재 시 불꽃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연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시야가 제한된 환경에서도 침착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응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체험자는 낮은 자세 유지, 벽면과 유도등을 활용한 출구 탐색, 젖은 수건을 이용한 호흡기 보호, 문 개방 전 온도 확인 등의 필수 대피 수칙을 실습한다. 실제와 유사한 연기 환경을 경험함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행동하는 심리적 통제력을 기를 수 있으며, 신속한 대피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체험은 학교, 안전체험관, 사업장 등에서 주요 화재 피난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된다. 특히 농연장 체험 시 피난구 유도등 활용 및 비상벨 작동을 통한 화재 전파 훈련을 병행할 경우 그 교육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농연장 탈출체험은 기본적 대피 행동을 익히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취약자 동반 대피, 방화문 활용, 피난 유도 역할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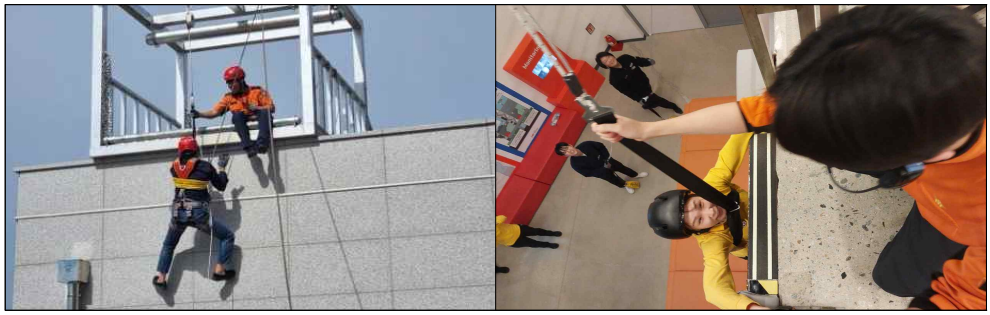
[그림 4-2] 농연 탈출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뉴시스

다) 완강기 탈출 체험

완강기 탈출 체험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 건물 내 주 출입구나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피난기구인 완강기를 활용해 지상으로 대피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이다. 완강기의 제원과 작동 원리, 설치 방법, 안전벨트 착용 요령 등을 학습한 후, 실제 또는 모의 하강 실습을 거치게 된다. 체험자는 지지대 결속 상태를 확인하고, 벽면을 지지하며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는 방법을 실습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의 대피 역량을 기르게 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체험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하여 전문 요원의 통제하에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체험은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피난기구 사용법을 교육하는 데 효과적이며, 실질적인 피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다만, 완강기를 이용한 대피는 현관 등 다른 피난 경로가 모두 차단되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사전 교육 시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농연장 탈출체험은 기본적 대피행동을 익히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취약자 동반 대피, 방화문 활용, 피난 유도 역할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림 4-3] 완강기 탈출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라) 피난구조대 체험

피난구조대 체험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피난구조대를 전개하여 대피하는 방법을 익히는 교육이다. 피난구조대의 설치 목적과 작동 원리, 진입 자세 및 하강 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실습하며,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한 하강 능력을 배양하는 목적이다. 참여자는 올바른 탑승 자세를 숙지하고 마찰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는 요령을 익히는 체험으로 초기 피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체험은 노유자시설, 공동주택, 교육시설 등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 구조대 역시 완강기와 마찬가지로 대체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되는 최후의 피난 수단임을 전제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4-4] 피난구조대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중앙일보

마) 공기안전매트 탈출 체험

공기안전매트 탈출 체험은 고층 건물 화재 시 지상으로 대피하기 위한 인명 구조 기구인 공기안전매트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낙하 자세를 실습하는 교육이다. 공기안전매트의 전개 구조와 사용 시 유의 사항, 낙하 자세 및 안전수칙 등을 학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험자는 공기안전매트가 인명 구조를 위한 핵심 장비임을 이해하고 화재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심리적 공황 상태를 극복하고 대피하는 훈련을 한다. 체험 과정에서는 교관의 지시에 따른 순차적 낙하가 매우 중요하다. 공기매트가 완전히 팽창한 상태에서 매트의 중앙부를 향해 낙하한다. 또한 통제 요원(소방관 등)의 지시를 확인하고 실행해야 한다.

특히 구조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선행 낙하자가 매트에서 완전히 이탈한 후 다음 대상자가 낙하하도록 통제하여 2차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공기안전매트 역시 정상적인 피난 경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활용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공기안전매트 탈출 체험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바) 심폐소생술 체험

심폐소생술 체험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실습하는 교육

이다. 의식 확인, 119 신고, 호흡 확인, 정확한 위치와 깊이의 가슴압박 실시 등 응급처치의 일련의 과정을 숙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는 교육용 마네킹과 모의 AED 장비를 활용해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반복 실습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초기 대응 역량을 내재화하게 되며, 이를 통해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고 응급처치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켜, 지역사회 내 최초 반응자(First Responder)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해당 체험은 연령을 불문하고 폭넓게 제공되어야 할 필수 생명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다.



[그림 4-6] 심폐소생술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서울일보

사) 교통안전 체험

교통안전 체험은 도로 환경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과 사고 예방 조치를 가상의 환경에서 체험하는 교육이다. 횡단보도 보행 수칙, 교통표지판 인지, 안전띠 착용, 차량 사각지대의 위험성 등 일상적 교통사고 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체험자는 조성된 체험 공간에서 올바른 보행 방법과 교통질서를 익히고, 위험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공간 지각력과 상황 판단력을 요구하는 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실효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신체적 반응 속도와 인지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맞춤형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체험의 비중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그림 4-7] 교통안전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아) 지하철 탈출체험

지하철 탈출 안전체험은 화재, 정전, 차량 고장, 터널 내 비상정지 등 지하철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승객이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다. 이 체험은 지하철 객실과 승강장, 터널 등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비상 시 행동요령을 직접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체험자는 지하철 내 비상통화장치 사용법, 출입문 비상 개방 방법, 승강장과 객실에서의 대피 요령, 유도등과 안내방송에 따른 이동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또한 터널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낮은 자세 유지, 선로 주변 이동 시 주의사항, 질서 있는 이동과 집단 대피의 중요성을 실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무리한 탈출이나 혼란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특히 지하철 사고는 밀폐된 공간, 제한된 탈출 경로, 다수 인원의 동시 이동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개인의 신속한 판단뿐 아니라 안내방송 청취, 승무원 및 통제요원의 지시 준수, 주변 승객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지하철 탈출 안전체험은 단순한 탈출 기술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장소 재난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행동하는 시민의식을 함께 함양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체험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체험

관, 도시철도 안전교육 프로그램, 학교 및 지역사회 안전교육 등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8] 지하철 탈출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자) 민방위 및 국가위기 대응 체험

민방위 체험은 전시, 재난, 테러, 화재, 지진, 화생방 사고 등 각종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동요령과 대처 방법을 직접 배우고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다. 이 체험은 비상시 대피요령, 경보발령 시 행동수칙, 방독면 착용법, 응급처치, 화재진압, 지진대피,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민방위 관련 교육 내용을 실제와 유사한 상황 속에서 체험해 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자는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단순히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익히고 반복 실습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또한 민방위 체험은 공동체 안전의 중요성과 위기 대응의식을 높이고, 비상시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돕고 협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민방위 체험은 어린이, 성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공공기관, 안전체험관, 지역행사 등에서 재난대응 및 생활안전교육 프로그램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9] 민방위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차) 생활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은 가정과 학교, 직장, 공공장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배우고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다. 이 체험은 화재,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전기·가스 사고, 낙상, 응급처치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여자가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체험하면서 안전수칙과 대응요령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러한 생활안전체험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안전체험관, 지역행사, 공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안전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실효성 높은 체험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10] 생활안전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카) 산불진압 및 대응 체험

산불진압체험은 산림이나 야외에서 발생하는 화재 상황을 가상으로 재현하여, 산불의 위험성과 특성을 이해하고 초기 대응 및 안전한 대피요령을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다. 이 체험은 산불 발생 원인과 확산 특성, 산불 발견 시 신고 방법, 초기 진화 시 주의사항, 바람과 지형에 따른 위험성, 안전한 대피 방법 등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는 모의 장비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산불진화 장비의 종류와 사용법을 익히고, 산불 발생 시 무리한 진압보다는 신속한 신고와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또한 체험을 통해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산림 인접 지역이나 야외 활동 중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산불진압체험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교육의 중점은 연령별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어린이에게는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신고 및 대피와 같은 기초적 안전행동을 익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인에게는 산불 발생 원인과 초기 대응 요령, 대피 유도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역할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불이 담뱃불, 쓰레기 소각, 영농 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체험 과정에는 예방수칙과 안전의식 제고 내용을 함께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11] 산불진압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춘천국유림관리소

3) 자연재난 체험

가) 지진체험

지진체험은 지진 발생 시 나타나는 흔들림과 주변 환경의 변화를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하면서,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을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다. 실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거나 머리를 보호하는 방법, 흔들림이 멈춘 뒤 안전하게 대피하는 요령, 낙하물과 전도 위험이 있는 물건을 피하는 행동요령 등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는 체험 장비나 모의 상황을 통해 지진의 진동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이러한 지진체험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 안전체험관, 공공기관, 지역행사 등에서 재난대응 교육의 일환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지진으로 인해 화재, 붕괴로 인해 복합재난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어린이는 안전한 곳으로의 피난이나 탈출에, 성인의 경우에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재난약자 탈출에도 필요한 체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4-12] 지진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나) 풍동체험

풍동체험은 강한 바람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공적으로 재현한 장비나 공간에서 바람의 세기와 영향을 직접 느껴보며, 태풍이나 강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올바른 행동요령을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다. 이 체험은 강풍이 사람의 몸에 미치는 영향과 보행의 어려움, 시설물 낙하 및 비산 위험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재난 상황에서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대피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자는 강한 바람 속에서 몸의 중심을 유지하는 방법, 간판이나 유리창, 가로수 등 위험 요소로부터 떨어지는 요령,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행동수칙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또한 풍동체험을 통해 태풍이나 강풍 발생 시 무리한 이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체감할 수 있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림 4-13] 풍동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다) 생존수영 및 수난사고 체험

생존수영 체험은 물놀이, 수난사고, 선박사고 등 물과 관련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구조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수중 생존 기술을 익히는 체험형 안전교육이다. 이 체험은 갑작스럽게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호흡을 유지하며 몸의 체력을 아끼는 방법, 물 위에 떠 있는 요령, 구명조끼 착용법, 주변 구조물이나 부유물을 활용한 생존방법 등을 배우는 데 중점을 둔다. 참여자는 물에 뜨는

자세, 이동하지 않고 버티는 방법, 구조 신호 보내기, 타인을 무리하게 구조하지 않고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등을 직접 실습하면서 실제 위급상황에 필요한 대응능력을 기르게 된다. 또한 생존수영 체험은 위기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체험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도 매우 유익한 안전교육으로, 학교, 수영장, 안전체험시설, 지역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수난사고 예방과 생명보호 교육의 일환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림 4-14] 생존수영 체험 - 성인, 어린이

출처 : 경향신문, 뉴스1

HANSUNG UNIVERSITY

제 4 장 개선방안

제 1 절 체험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및 시사점

현재 국내 주요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화재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도시안전, 그리고 보건·응급 및 생활안전의 다섯 가지 범주로 세분화되어 운영되는 실정이다. 각 체험관은 이러한 재난 유형을 모사할 수 있는 우수한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운영되는 교육 콘텐츠(소프트웨어)의 구성 방식과 실습의 깊이를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어린이의 인지적 수준과 신체적 능력에 맞춰 단순화되어 있다는 공통된 한계를 지닌다.

1) 운영성과 평가와 운영정책 목적 간 괴리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실적은 일반적으로 이용자 수, 운영 회차, 프로그램 참여 인원 등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체험관 운영 성과를 비교적 쉽게 수치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어떤 대상이 어떤 내용의 체험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교육이 재난대응 역량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학교와 연계한 학생 단체 체험은 일정한 규모의 참여 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실적을 산출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실적의 확대가 곧바로 전 연령층 대상의 재난안전교육 실효성 제고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5장 초안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용자 수나 운영 회차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은 어린이 단체 중심 운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중심 운영이 성인 대상 체험교육의 필요성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 단체는 학교라는 제도적 전달체계를 통해 체험관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반면, 성인

은 직장, 민방위,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다양한 통로에 분산되어 있어 별도의 연계 장치 없이는 참여 확대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체험관이 양적 실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모집과 운영이 수월한 학생 단체 중심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겉으로는 체험 실적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 대상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성인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의 확대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성과는 단순한 참여 인원 수가 아니라 대상의 다양성, 교육 내용의 적합성, 반복 참여 구조, 성인 대상 독립 프로그램의 확보 여부 등 질적 지표와 함께 평가될 필요가 있다.

국민안전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은 화재, 지진, 풍수해, 교통사고, 응급처치 등 다양한 재난 유형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 재난현장에서 성인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에 충분히 부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다수 체험관의 프로그램은 체험의 흥미성과 기초적 안전 지식 전달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성인이 직면할 수 있는 복합적 의사결정, 가족 보호, 대피 유도, 초기 진압, 신고 및 협조, 취약계층 지원 등의 역할까지 포괄하는 실전형 교육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시민 초기대응자의 역할과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고, 제3장에서는 성인이 실제 재난 대응에서 중요한 주체임을 전제로 정책 대상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제4장의 사례 분석 결과, 성인을 독립적 학습자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며, 다수의 프로그램은 어린이 또는 혼합 대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실제 재난현장과 체험 운영 사이의 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설계 기준이 체험의 접근성과 일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초적 안전체험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지만, 성인의 경우 단순한 안전수칙의 숙지 수준을 넘어 보다 상황 기반적이고 역할 중심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예컨대 직장 내 화재 대피, 공동주택 내 초기 대응, 가족 단위 대피 판단, 노인·어린이 동반 상황에서의 대응,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재난 발생

직후 지역사회 협력 행동 등은 성인 대상 체험교육에서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 구조는 이러한 실전형 성인 맞춤 체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체험 프로그램과 실제 재난 대응 현실 사이에 내용적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체험관 운영 체계와 접근성의 구조적 한계

국민안전체험관의 한계는 개별 프로그램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체험관의 설계와 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현재 체험관의 운영은 온라인 사전 예약, 정원제, 평일 중심 운영, 단체 방문 중심 방식 등 일정한 운영 효율성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학교 단체의 방문을 조직하고 회차별 운영을 관리하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직장인, 자영업자, 고령층, 양육자 등 다양한 생활 조건을 가진 일반 성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데에는 분명한 제약을 가진다. 실제로 제5장 초안에서도 이러한 운영 구조는 어린이 단체 이용에는 적합하지만, 일반 성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설계 측면에서도 체험관이 누구를 주요 이용자로 상정하고 있는지가 공간 구성, 프로그램 동선, 시간 편성, 안내 체계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가 분석한 프로그램 구성 현황을 보면, 어린이 체험, 학생 체험, 종사자 대상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제시되는 반면, 일반 성인이 일상적으로 접근하여 참여할 수 있는 독립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의 문제가 아니라, 체험관의 운영 체계가 성인을 정기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충분히 전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국민안전체험관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표방과 달리, 실제 설계와 운영의 수준에서는 특정 연령층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체험관의 운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그램 추가를 넘어 운영 시간, 예약 방식, 개인 참여 기회, 성인 연계 채널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구조의 재설계가 요구된다.

3) 프로그램 구성의 편중과 다양성 부족

국민안전체험관은 외형상 여러 재난 유형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교육 대상과 내용 구성의 측면에서 체험 종류의 다양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분석 결과 일부 체험관은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그 프로그램들이 어린이 체험, 기초 응급처치, 생활안전, 화재안전 등 일정한 유형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자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응급처치, 종사자 교육, 일부 전문교육 등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성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역할에 따라 세분화된 프로그램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예컨대 일반 시민, 직장인, 고령층, 보호자, 공동주택 거주자,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성인 집단의 특성에 부합하는 체험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러한 다양성 부족은 국민안전체험관이 전 연령층의 재난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인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직업, 가족구성, 생활양식, 신체조건, 지역사회 역할 등에 따라 필요한 안전체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재 프로그램 구성은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비교적 보편적이고 반복적인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더라도, 실제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적 다양성이 부족할 경우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생애주기와 생활영역, 재난유형, 역할 수행 맥락을 반영한 성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체험 종류의 실질적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은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전 연령층 대상 국민안전체험 정책 설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4) 재난유형별 체험프로그램의 실전성 한계

화재안전 체험은 소화기 조작, 옥내소화전 사용, 농연 탈출, 완강기 및 구조대 탈출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소화기 체험의 경우, 대다수가 대형 스크린의 화점을 향해 물이나 광선을 분사하는 시뮬레이터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실제 분말소화기의 중량감, 방사 시의 반동, 시야 확보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물리적 감각을 체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화재 초기 진압에 핵심적인 옥내소화전은 밸브 개방, 호스 전개, 방수 압력 제어를 위해 최소 2인 1조의 협동과 성인의 근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구조 설명이나 모형을 통한 단편적 시연에 그치고 있다.

피난 체험 역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개인적 생존 지침에 머물러 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 성인은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수동 조작, 피난유도선 확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한 복합 피난을 이끌어야 함에도 이러한 훈련 시나리오는 부재하다. 고층 건물 대피에 필수적인 완강기 체험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실제 지지대 결속이나 체중을 실은 하강 훈련을 생략하거나 소수의 시범을 통한 체험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전 적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결국 화재안전 체험은 기본행동 학습의 출발점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성인에게 요구되는 초기 진압과 피난 유도, 타인 보호, 설비 활용 역량까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전성 강화가 필요하다.

교통안전 체험은 지하철 화재 탈출, 시내버스 전복, 자동차 침수, 선박 침몰 시나리오 등을 포괄한다. 지하철 및 버스 체험은 주로 출입문 비상콕크(Cock)의 개방, 비상망치를 이용한 유리창 파쇄 지점 확인, 안전벨트 착용 후 회전하는 차량에서의 탈출 순서로 진행된다. 선박 생존 체험 역시 구명조끼 착용과 슬라이드 탈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러한 체험 방식은 '개인의 무사 탈출'이라는 1차원적 목표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사고 시 성인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패닉에 빠진 군중을 진정시키고, 밀집으로 인한 2차 압사 사고를 방지하며, 후속 차량 통제 및 초기 구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

행 체험 구조는 군중 통제나 비상 대피 동선 분산과 같은 성인 수준의 상황 판단 훈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 및 수난 관련 체험은 개인의 탈출 행동을 넘어, 군중 속 질서 유지, 타인 보호, 구조 요청과 같은 성인 역할 수행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지진,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난 체험은 진도별 흔들림을 흉내 내는 지진 시뮬레이터나 강풍 및 폭우를 직접 체험하는 체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진 체험의 경우 낙하물을 피해 테이블 밑으로 숨는 행동(Duck, Cover, Hold on)이 반복적으로 훈련되나, 이는 재난 발생 직후의 반사적 생존 본능에 가까울 뿐이다.

성인 대상 교육이라면 진동이 일시적으로 멈춘 골든타임 내에 가스 밸브와 누전차단기를 즉각 차단하여 2차 화재를 예방하는 조치, 출입문 개방을 통한 탈출로 확보, 대피소 이동을 위한 생존 배낭 꾸리기 등 실질적인 수습 능력이 포함돼야 한다. 태풍 및 호우 체험 역시 풍속과 수압의 위력을 느끼는 감각적 경험에 치우쳐 있어 침수 시 지하 공간에서의 모래주머니 설치, 차수판 전개, 차량이나 도보 대피 시 한계 수심 파악 등 실체적인 대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즉 자연재난 체험은 감각적 위기 인지에는 일정한 효과가 있으나, 성인에게 필요한 생활공간 기반의 실질적 조치와 수습 행동까지 연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는 붕괴 사고, 화학물질 누출, 다중밀집(압사) 사고 등 복합 사회재난 분야의 경우, 체험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거나 영상 시청 위주의 소극적 교육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나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활동하는 성인의 경우, 위험 징후 사전 인지, 유해 화학물질 발생 시 풍향을 고려한 대피 방향 설정, 군중 밀집도 증가 시의 우회로 확보 및 공간 창출 요령 등 고도의 상황 판단 능력이 필수적이나, 이를 실전처럼 훈련할 수 있는 행동 기반 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이는 향후 성인 대상 실전형 국민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사회

재난과 군중사고 대응을 별도의 핵심 영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폐쇄 응급처치(하임리히법) 등은 체험관의 필수 운영 프로그램이나, 통제된 환경에서 마네킹을 수 분간 압박하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운영된다. 실제 심정지 상황에서는 119 신고와 AED 획득을 특정인에게 명확히 지목하여 지시하는 통제력,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흉부 압박을 교대하며 유지해야 하는 체력적 안배가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의 실습은 초등학생 수준의 단시간 체험으로 구성되어 성인 학습자가 실제 겪게 될 당황스러움과 현장감을 부여하지 못하고, 또한 산악 안전, 캠핑장 일산화탄소 중독 예방,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일상적 생활안전 분야 역시 주의사항을 청취하는 견학 형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이상을 종합하면, 현재 국내 국민안전체험관은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 체험 시설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콘텐츠는 복잡한 재난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유희화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는 국민안전체험관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자조(自助)'와 '공조(共助)'의 주축이 되어야 할 성인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끌어올리는 훈련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체험 시설의 외형적 다양성을 넘어, 성인의 신체적 능력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실전 훈련형·역할 부여형' 콘텐츠로 정책 기획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응급 및 생활안전 체험은 필수적 가치가 있으나,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장감, 반복성, 역할 분담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5) 체험 운영대상 편중의 한계

프로그램 대상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보기 위해 <표 4-3>과 같이 전체 프로그램 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수, 성인 대상 프로그램 수, 혼합 대상 프로그램 수를 정리하였다.

<표 4-3>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 구성 현황

체험관	전체 프로그램수 (혼합 대상 제외)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성인 대상 프로그램	혼합 대상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비율
보라매 안전체험관	6	5	1	4	16.6%
광나루 안전체험관	5	4	1	3	20.0%
경기도국민안 전체험관	7	6	1	5	14.3%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6	6	0	5	0.0%
충북안전체험관	7	7	0	5	0.0%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11	10	1	8	9.1%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	8	8	0	8	0.0%
부산119 안전체험관	7	7	0	6	0.0%

<표 4-3>을 보면 분석 대상 8개 체험관의 전체 프로그램 수는 총 57개이며, 이 가운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53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4개로 집계된다. 단순 합산 기준으로 보더라도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한 수준이다. 반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체험관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충남, 충북, 대구, 부산 체험관의 경

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 구조가 전반적으로 어린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혼합 대상 프로그램의 존재이다. 혼합 대상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이상', '11세 이상', '중학생 이상'과 같이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인을 정책적으로 명확한 교육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운영에서도 어린이 단체나 청소년 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합 대상 프로그램의 존재를 곧바로 성인 대상 국민안전체험 정책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조가 성인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인을 주요 교육 대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설계된 체험 프로그램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성인은 체험관 프로그램 구조 속에서 '독립적인 교육 대상'이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 참여가 가능한 주변적 대상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6) 체험실태 결과 및 시사점

이상의 체험실태 현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국민안전체험관의 운영 구조는 공공기관 중심 운영, 온라인 사전 예약 중심 이용, 회차별 정원제 운영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체험 인원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일정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 이용자에게는 접근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직장인 성인의 경우 평일 참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주말 운영이 이루어지더라도 회차별 정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대상 구조는 전반적으로 어린이 중심의 성격을 보인다.

분석 결과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일부 체험관에서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교직원이나 시설 종사자와 같이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국민안전체험 정책이 일반 성인 전체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혼합 대상 프로그램의 존재만으로 성인 대상 정책이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초등학생 이상'과 같은 표현은 성인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두는 방식이지만, 성인을 위한 별도의 교육 내용이나 운영 방식이 함께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제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인이 참여 "가능한" 구조와 성인을 적극적으로 "대상화한" 정책 구조는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보면 국내 국민안전체험관은 운영 방식과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공공부문 주도, 온라인 예약 중심,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 편성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일부 체험관에서 제한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절반의 체험관에서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도 참여할 수 있는 혼합 대상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곧 성인 대상 체험형 안전교육이 충분히 제도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3장에서 살펴본 법·제도 분석과도 일정 부분 연결된다. 재난안전교육 정책은 선언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학교와 어린이 중심 구조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재난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한 정책 기반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을 포함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체험 정책의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국민안전체험관 설계 방향

1)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정책의 구조적 문제

앞선 장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안전체험관은 국민의 재난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체계에서는 어린이 중심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전체 체험 프로그램 가운데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비중은 높은 반면에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자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별 체험관의 운영상 선택에서 비롯된 문제라기보다,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이 놓여 있는 법·제도적 환경과 정책 설계 구조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령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체험형 교육의 대상과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학교 교육 과정에서의 안전교육은 교육 대상과 집행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기 쉬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운영 구조 측면에서도 성인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존재하는데 온라인 사전 예약, 정원제, 평일 중심 운영, 단체 방문 중심 방식은 어린이 단체의 이용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직장인·고령층·양육자 등 일반 성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를 보인다. 더불어 어린이는 학교라는 제도적 전달체계를 통해 체험관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반면, 성인은 민방위, 직장교육, 평생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계에 분산되어 있어 별도의 연계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존 체험관 정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상기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면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문제는 단순히

성인 대상 프로그램 수가 부족하다는 현상적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책 대상 설정, 제도적 강도, 운영 방식, 참여 전달체계, 성과평가 기준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특정 연령층 중심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정책 대상 설정 측면에서 어린이는 제도적으로 비교적 명확한 교육 대상으로 규정되는 반면 성인은 포괄적 범주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제도적 강도 측면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존재하지만, 교육 대상과 운영 기준에 대한 구체성은 부족하다. 셋째, 운영 방식 측면에서 현행 예약·운영 구조는 일반 성인의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 넷째, 참여 전달체계 측면에서 어린이와 달리 성인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제도적 통로가 미흡하다. 다섯째, 성과평가 측면에서 이용자 수나 운영 회차 중심의 양적 지표는 어린이 단체 중심 운영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국가 차원의 정책 진단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20)는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체험관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그 이용 대상이 어린이와 초중고 학생 위주로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보고서는 성인을 비롯한 전 국민의 실질적인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관 접근성 개선과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의 질적 고도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 수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을 실질적인 정책 대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운영 구조를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 구조는 단순히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설정, 운영 기준, 전달체계, 성과평가 지표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문제는 개별 체험관의 운영 미흡이라기보다, 어린이 중심 구조가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반면 성인 체계는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남아 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정책의 개선은 프로그램 추가 수준이 아니라 운영 원리의 재설계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생애주기 기반 국민안전체험 운영정책 제안

재난 대응 역량은 특정 연령대에서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반복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 운영정책 역시 특정 연령층에만 집중되기보다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재난 상황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이 처한 사회적 역할과 생활 조건에 따라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주기 기반 안전교육은 연령별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차별화하는 접근 방식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안전 행동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 교육을 통해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인의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 능력뿐 아니라 주변 사람을 보호하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이 중요하다. 또한 고령층의 경우 신체적 특성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안전교육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Shih 등(2018)도 고령자의 재난 회복탄력성은 일반적 대비 정책만으로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고, 공중보건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활 맥락을 반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연다혜 외 1명(2024)도 지역 안전교육정책 점검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과 사각지대 없는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을 국민안전체험 정책의 실질적 대상으로 재설계할 필요성과 연결된다. 이는 국민안전체험 정책이 생애주기 기반 안전교육 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체험관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체험, 학생 체험교육, 청소년 진로체험 등 학교

교육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비교적 다양하게 운영되는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제한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은 기존의 어린이 중심 교육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성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성인은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재난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은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은 직장인,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여 설계될 수 있다. 특히 화재 초기 대응,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재난 상황에서의 대피 방법과 같은 교육 내용은 성인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이 확대될 경우 개인의 재난 대응 역량뿐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 대응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주기 기반 설계는 단순히 연령별 체험 프로그램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각 연령층이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떠한 재난 위험에 노출되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할 때 효과가 높은지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중심 기초 안전습관 형성형 교육과 함께, 성인 역할 수행형 실전교육, 고령층 생활안전 대응형 교육을 병행하는 다층적 체계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3) 재난 유형별 성인 맞춤형 실전 체험 콘텐츠 설계

국민안전체험관이 성인을 실질적인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순 대피 및 감각적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성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형 실전 훈련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재난 발생 초기, 공공의 구조 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온전히 성인들의 자조(自助)와 공조(共助) 역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난 유형별로 성인의 현실적 맥락을 반영한 실전형 콘텐츠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다.

첫째, 화재안전 및 피난 분야이다. 성인 대상 화재 체험은 개인의 단순 탈출을 넘어 현장의 초기 진압과 피난 유도 역량을 기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단순한 시뮬레이터 소화기 조작을 탈피하여, 실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축물 내 주요 소방시설을 직접 다루는 훈련이 필요하다. 옥내소화전의 경우 화재 경보 인지 후 2인 1조를 구성하여 밸브를 개방하고 관창을 쥐며 방수 압력을 견디는 실물 조작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피난 훈련 역시 연기 미로를 통과하는 수준을 넘어, 방화문 및 방화셔터의 수동 조작법,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영유아를 동반한 복합 피난 시나리오, 피난유도선을 확보하여 타인의 대피를 지휘하는 훈련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 아울러 완강기 체험은 고층 건물 거주 비율이 높은 성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실제 지지대 결속과 하강 실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통 및 사회재난 분야이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사고 현장에서 성인은 패닉에 빠진 군중을 통제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초기 대응자(First Responder)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하철이나 대형 쇼핑몰 화재 시나리오에서는 단순히 비상문을 열고 나가는 것을 넘어, 군중 밀집으로 인한 병목 현상과 압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 동선을 분산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군중 통제 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도로 상의 추돌이나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후속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안전 삼각대 설치 및 수신호 유도, 유해 화학물질 누출 시 풍향을 고려한 대피 방향 설정 등 종합적인 상황 판단 능력을 배양하는 시나리오가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자연재난 분야이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 체험은 진동이나 강풍을 느끼는 감각적 경험에서 벗어나 재난 발생 직후의 물리적 수습 조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지진 발생 시 진동이 멈춘 직후 가스 밸브와 누전차단기를 즉각 차단하여 2차 화재를 예방하는 조치나 뒤틀린 현관문을 개방하여 탈출로를 확보하는 절차가 훈련되어야 한다. 집중호우 및 침수 시나리오에서는 지하 주차장이나 저지대 주택에서 물이 차오르기 전 차수판을 전개하고 모래주머니를 쌓는 실물 조작 훈련, 차량 고립 시 수압을 고려한 문 개방 타이밍 숙지 등 생활 밀착형 생존 훈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보건·응급 및 생활안전 분야이다.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교육은 통제된 강의실 환경을 벗어나 현장감이 부여된 모의 환경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성인 학습자에게는 단순히 흉부를 압박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 신고와 AED 지참을 지시하는 현장 지휘 역량이 요구된다.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체력 고갈을 막기 위해 주변인과 교대하며 압박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실습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텐트 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통화장치 사용 및 정확한 위치 정보 교신 훈련 등 실생활 적용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재난의 유형별로 성인의 현실적 맥락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콘텐츠를 차별화할 때, 국민안전체험관은 단순한 견학 시설을 넘어 전 연령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4) 성인 안전체험과 어린이 안전체험의 공간·운영 설계 차별화

현재 많은 안전체험관은 설계 단계부터 어린이와 학생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상정하여 공간과 체험시설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식은 아동기 안전교육의 접근성과 흥미를 높이는 데에는 장점이 있으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특히 체험시설의 규모, 장비 높이, 동선, 설명 방식, 교육 난이도 등이 어린이의 신체 조건과 이해 수준에 맞추어 설계될 경우, 동일한 공간에서 성인이 체험에 참여할 때 신체적 불편과 교육 효과 저하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 중심 체험관에서 성인이 체험하는 경우의 첫 번째 문제는 신체적 적합성의 부족이다. 성인은 어린이에 비해 신장, 보폭, 근력, 시야 높이, 움직임의 범위가 다르므로, 어린이 중심으로 구성된 체험공간에서는 동선이 협소하거나 장비 조작 자세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예를 들어 피

난기구, 연기대피, 화재진압, 지진대피 체험이 어린이 체격에 맞추어 낮은 높이와 단순화된 구조로 설계된 경우, 성인은 실제 재난상황과 유사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거나 장비를 다루기 어렵다. 그 결과 성인의 체험은 실질적 훈련이 아니라 형식적 참여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교육 내용과 전달 방식의 부적합성이다. 어린이 중심 체험관은 흥미와 몰입을 유도하는 체험 요소를 강조하며, 교육 내용도 기초적인 안전수칙과 대피 행동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는 어린이에게는 적절할 수 있으나, 성인에게 요구되는 초기 대응, 타인 보호, 상황 판단, 시설 활용, 응급처치의 지속 수행과 같은 역할 중심 학습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즉 성인이 어린이용 체험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 자신의 생활 맥락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문제해결형 학습을 수행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세 번째 문제는 체험관의 상징성과 이용 인식의 측면이다. 시설 전체가 사실상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인식되는 경우, 성인은 해당 공간을 자신의 재난안전교육 장소라기보다 자녀 동반 체험이나 견학 공간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이는 성인의 자발적 참여를 약화시키고, 국민안전체험관이 전 연령층을 위한 공공 안전교육 인프라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제약이 된다.

따라서 향후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은 단순히 성인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체험관 또는 성인 특화형 체험공간을 별도로 설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성인 대상 체험공간은 실제 생활환경과 유사한 피난 동선, 성인 체격에 맞는 장비 조작 환경,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직장·가정 내 재난상황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내용 역시 기초적 안전수칙의 전달을 넘어, 초기 화재진압, 피난유도, 거동불편자 대피 보조, 심폐소생술의 지속 수행, 자동심장충격기 활용, 재난현장 의사결정 등 성인의 역할 수행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결국 어린이 중심 체험관은 어린이 안전교육 인프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이를 성인 체험교육까지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구조로 보기는 어렵다. 성인의 재난대응 역량은 별도의 공간 설계와 교육목표를 필요

로 하므로, 향후 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중심 체험관의 확대와 함께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체험시설 또는 성인 특화형 체험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제 3 절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체계의 제도화 및 추진 전략

1) 제도적 강도 강화 방안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설계의 구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체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식과 같은 급격한 정책 전환은 현실적인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제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책 개선의 방향은 기존 법령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시행령이나 행정지침과 같은 하위 규범 수준에서 제도적 강도를 점진적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장용해(2022)는 안전체험시설이 교육 프로그램과 공간 인프라가 결합된 특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계획 기준이 충분히 정교하지 않을 경우 교육 품질과 운영 일관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먼저 국민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된 세부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체험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운영 기관의 자율성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구성이나 교육 대상 설정 역시 기관별로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험형 안전교육이 체험관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체험형 교육의 최소 기준이나 프로그램 구성 원칙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강제적인 규정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책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시될 수 있으며, 각 체험관이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특히 성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은 직장인 교육, 지역 주민 대상 교육, 생활 안전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기관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질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현재 일부 체험관에서는 체험 참여 인원이나 이용자 수를 중심으로 운영 성과가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체험형 교육의 실질적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한 참여 인원 규모뿐 아니라 참여형 체험의 비율, 체험 시간의 적정성, 반복 학습 구조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평가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이 제시될 경우 국민안전체험관이 단순한 체험 시설을 넘어 실질적인 안전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거버넌스 기반 운영 구조 개선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은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정책 영역이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방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행위자가 정책 추진 과정에 관여하는 만큼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가 정책 운영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특히 재난안전교육은 단일 기관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보다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협력 구조가 정책의 실질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민안전체험관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방기관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의 연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단체 체험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과 연계된 체험 활동은 참여 경로가 비교적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교육의 경우 학교 교육과 같은 안정적인 참여 경로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체험 프로그램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성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의 연계 구조를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이나 직장 내 안전교육과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교육 체계와 체험교육을 결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수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행사와 연계한 체험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인의 체험 참여를 자연스럽게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국민안전체험관을 단순한 체험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전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실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험관과 기존 교육 체계를 연계하는 거버넌스 기반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

첫째, 민방위 교육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민방위 교육은 성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공공 교육 체계 가운데 하나로, 재난 대응과 위기관리라는 측면에서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론 중심 민방위 교육의 일부를 체험관 기반 실습형 교육과 결합할 경우 교육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성인 참여 기반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직장 안전교육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산업현장과 사무공간,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재난 대응은 성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직장인 응급처치 교육, 화재 초기 대응 훈련 등을 국민안전체험관과 연계하면 실질적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고려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 통장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조직과 체험관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일반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학교 전달체계 밖에 있는 성인을 국민안전체험관 정책 안으로 편입시키는 데 유용하다.

넷째, 가족 단위 프로그램의 확대도 중요하다. 성인과 어린이를 분리된 교육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하나의 생활 단위이자 재난 대응 단위로 이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대피훈련, 응급처치 체험, 주택 화재 대응 프로그램 등은 세대 간 학습 효과와 실생활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구조는 국민안전체험관을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안전 역량을 연결하는 허브로 기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가치가 크다.

3) 법정 의무교육과 국민안전체험관의 행정적·제도적 결합 모델

성인의 자발적 의지에만 의존하는 현행 방식은 국민안전체험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한계가 명확해 보이며 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존의 법정 의무교육 제도와 국민안전체험관의 실습 프로그램을 행정적으로 결합하는 '인센티브 기반 연계 모델'의 도입이 요구된다.

가장 대표적인 연계 대상을 고려해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이다. 현행 산업안전 보건교육은 주로 사업장 내 자체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 시청각 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실전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는 데 한계가 항상 지적되어 왔다. 기업의 근로자가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화재 대피, 심폐소생술, 완강기 실습 등의 실전형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이를 법정 의무교육 이수 시간으로 공식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기업 측은 교육 운영의 행정적 부담이 줄고 근로자

에게는 질 높은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안전체험관 입장에서는 평일 주간 시간대의 성인 이용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효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나 관계인 소방훈련과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2년 주기의 세대 내 소방점검이 의무화되는 등 주거 공간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 혹은 일반 세대주가 체험관에서 실전 대피 및 옥내소화전 조작 훈련을 이수할 경우 이를 법정 소방훈련 결과로 인정해 주는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성인의 생활밀착형 안전 교육 참여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민방위 교육 역시 단순 이론 강의를 탈피하고 일정 연차 이상의 대원들은 국민안전체험관 실습을 의무 대체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결합 모델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무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광역자치단체와 운영 주체인 소방본부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 담당), 행정안전부(민방위 담당), 교육부 등과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교육 이수 인정 기준과 행정 처리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 즉, 국민안전체험관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단순 견학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성인들의 다양한 법정 의무교육 수요를 실전형으로 소화해 내는 '종합 재난안전 훈련 플랫폼'으로 격상시키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이 거버넌스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4) 운영 정책 추진 전략 세분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개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회성 조치라기보다는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격상 다양한 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며 기존 제도와의 연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변화 역시 일정한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행정지침 수준에서 프로그램 구성 기준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각 체험관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성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나 참여형 체험의 강화와 같은 방향을 고려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법령 개정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정책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시행령 수준에서 체험형 재난교육의 대상과 운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교육 대상이나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포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행령을 통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법률 개정 없이도 정책 운영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정책 시행 이후 나타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은 교육 대상, 운영 방식, 참여 구조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안전체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이 국민의 재난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구조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안전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실제 재난 상황에서는 성인이 초기 대응의 주요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에서 성인의 위치와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법·제도적 구조를 먼저 검토하고, 실제 체험관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난안전교육 관련 법령을 살펴본 결과, 재난안전교육 정책은 형식적으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제도 설계에서는 학교 중심의 안전교육 체계가 비교적 강하게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경우 체험관 설치 및 운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교육 대상이나 운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또한 국내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프로그램 가운데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의 비율은 약 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체험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립적인 프로그램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어린이 대상 또는 ‘취학 어린이 이상’과 같은 혼합 대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조가 전반적으로 어린이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상은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 대상 설정 방식과 제도적 강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 구조적 특성과 일정 부분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안전체험관의 어린이 중심 구조는 우연한 운영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설계와 전달체계, 운영 유인의 결합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 중심 교육은 제도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성인을 위한 체험형 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한 기반 속에 놓여 있다. 실제 운영 현황에서도 성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상당수 프로그램은 어린이 중심 혹은 혼합 대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인을 실질적인 교육 대상으로 반영하는 방향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국민안전체험 정책 설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국민안전체험 정책은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기보다는 생애주기 관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재난 대응 역량은 단기간의 일회성 교육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교육과 경험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은 어린이 중심 교육 구조를 유지하되 성인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을 정책 대상으로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성인은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재난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대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 Gülsoy 등(2025)의 연구에서도 성인의 재난 리터러시 수준과 재난 대비 수준 사이에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성인을 독립적인 교육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단순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대비 역량과도 연결됨을 보여준다.

둘째,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의 제도적 구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와 운영은 법령을 통해 허용되고 있으나 체험 프로그램의 대상이나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포괄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체험관마다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행령이나 행정지침 수준에서 체험형 안전교육의 기본적인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 대상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정책적 연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민방위 교육이나 직장 내 안전교육과 국민안전체험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은 성인 참여를 확대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기보다는 기존 교육 체계와 체험교육을 결합하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국민안전체험관 운영에서 질적 체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체험 참여 인원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행동을 익힐 수 있도록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의 비중을 확대하고, 체험 교육의 질적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은 체험공간의 설계와 운영 구조를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어린이 중심으로 조성된 체험공간은 성인 체험 교육에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성인전용 단독 건물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 기존 체험관 내부에서 어린이와 성인의 체험공간을 분리·특화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이다. 즉 동일한 시설 안에서도 대상별 신체 조건과 교육목표를 반영한 공간 구획과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어린이에게는 흥미 중심의 기초 안전교육을, 성인에게는 역할 수행 중심의 실전형 안전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을 법·제도 분석과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동시에 몇 가지 한계도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국민안전체험관 사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모든 체험관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지역별 운영 여건이나 정책 환경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체험관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 구성과 정책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체험형 교육이 실제 재난 대응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실증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체험형 재난안전교육이 재난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 체험 참여가 개인의 행동 변화로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체험형 교육 참여와 재난 대응 행동 간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볼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직장 환경, 시간 제약, 교육 인식 등 다양한 요인이 체험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인의 국민안전체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체험형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을 제도 설계와 정책 대상 설정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재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국민안전체험 정책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층의 재난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설계와 운영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국민안전체험관의 어린이 중심 구조는 우연한 운영 결과가 아니라 제도적 설계와 전달체계, 운영 유인의 결합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제도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교 중심 교육은 제도적으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성인을 위한 체험형 교육은 상대적으로 약한 기반 속에 놓여 있다. 실제 운영 현황에서도 성인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상당수 프로그램은 어린이 중심 혹은 혼합 대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안전체험관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인을 실질적인 교육 대상으로 반영하는 방향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HANSUNG UNIVERSITY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강희조, 이영미, 안병천, 임미숙. (2023). 국민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4(8), 1687-1693.

국회입법조사처. (2020). 안전체험관 사업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김아연. (2017). 재난안전체험관의 운영 개선방안.『한국운영정책논집』. 17, 47-50.

김필·한병훈. (2023). 시민안전교육 거버넌스: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30(3), 77-100.

남재성. (2021).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프로그램 확대방안. 『안전문화연구』. 11, 145-164

변성수. (2018) 재난안전체험관의 민·관 협력 운영 비교 분석: 미국, 캐나다, 일본 사례,『한국위기관리논집』. 14(2), 153-173.

연다혜·조성윤. (2024). 「인천광역시 안전교육정책 개선방안 연구」. 인천연구원.

이옥철. (2016). 국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분석. 『Crisisonomy』, 12(10), 1-14.

이요한, 이현정. (2017). 국내 안전체험관의 재난안전 교육 프로그램 특성.『한국생활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61-162.

이재은. (2012).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국가 위기관리 체계에서 시민의 역할)

장선희. (2021). 가상현실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 유형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434-445

장용해. (2022). 안전체험시설 계획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전시체험공간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상현. (2016) 미국 재난관리 시스템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한국자치

행정학보』. 30(4). 365-392.
주선미. (2020). 재난안전교육 효과증대를 위한 안전체험관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소방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40-58.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조성일·김병조·배정이. (2015). 재난안전체험관 사례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Crisisonomy』, 11(5), 27-47.
전두준, 이종연. (2016). 국내 재난안전체험관 현황과 문제점.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7-151.
최호철. (2019). 재난대응역량과 재난관리성과의 관계성에 법·제도 체계성이 미치는 영향 연구.『한국운영정책과학학회보』. 23(2). 25-48.
행정안전부. (2025).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

HANSUNG UNIVERSITY

2. 국외문헌

Aldrich, D. P. (2012). *Building Resilience: Social Capital in Post-Disaster Recove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azeli, S., Haghani, M., Mojtahedi, M., & Rashidi, T. H. (2024). The role of individual preparedness and behavioural training in natural hazards: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Disaster Risk Reduction*, 105, 104379.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9). *CERT Basic Training Participant Manual*.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25). *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 (CERT)*.

Gülsoy, A., Uyan, Y., Özcan, E., & Durmuş, M. (2025). *The relationship between disaster literacy levels and disaster preparedness among adults.* Natural Hazards, 121, 10667-10681.

Guo, Fang, et al. (2025). The development of disaster preparedness education for public: a scoping review. *BMC Public Health, 25,* Article 645.

İnal, E., & Bahar-Ozvaris, S. B. (2017). *Evaluation of Disaster Education from a Pedagogical and Andragogical (Adult Learning Theory) Perspective and Recommendations*. Prehospital and Disaster Medicine, 32(S1).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Lacher, S. (2024). *Exploring disaster preparedness: a scoping review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pproaches in international civil protection research.* Journal of Risk Research, 27(10), 1273-1289.

Schneider, A. L., & Ingram, H. (1993). *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s: Implications for Politics and Poli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7(2), 334-347.

Selby, D., & Kagawa, F. (2012). *Disaster Risk Reduction in School Curricula: Case Studies from Thirty Countries.* UNICEF/UNESCO.

Shih, R. A., Acosta, J. D., Chen, E. K., Carbone, E. G., Xenakis, L., Adamson, D. M., & Chandra, A. (2018). *Improving disaster resilience among older adults: Insights from public health departments and aging-in-place efforts.* RAND Corporation.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n.d.). *Community Programmes.* SCDF.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n.d.). *Responders Plus Programme (RPP).* SCDF.

Tokyo Fire Department. (n.d.) *Disaster Prevention / Life Safety Learning Center materials.*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UNDRR). (2015). *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

HANSUNG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Current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National Safety Experience Centers

Lee, Jeong-chan

Major in Social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Dept. of Social Disaster and Safety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design of disaster safety experience centers with a focus on their inclusiveness across age groups. In Korea, disaster safety experience centers have been widely established as a key instrument for disaster safety education. However, in practice, many programs are primarily designed for children and students, while programs specifically targeting adults remain limited. Considering that adults often play a central role in initial response during disaste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y are positioned within the current policy framework.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 related to disaster safety education and examine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selected disaster safety experience centers in Korea. Eight representative centers were selected for case comparison. The programs offered by these centers we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programs for children and students, programs for adults, and mixed programs open to school-age participants and

above.
The findings show that most programs are largely centered on children and students, while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for adults account for only a small portion of the total. In several cases, no independent programs for adults were identified. Although some programs are open to broader age groups, they are not necessarily designed with adults as primary participants. This suggests that adults are not clearly established as a core target group within the current policy structu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imited provision of adult-oriented programs is not simply an operational issue, but is related to the broader policy design, particularly in terms of target group defini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disaster safety experience center policies need to be redesigned to better reflect a life-cycle perspective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adults within experiential safety education.
Keywords: disaster safety experience center, disaster safety education, experiential learning, policy design, governance

Keywords: National Safety Experience Center, Disaster Safety Education, Experiential Safety Education, Operational Policy, Governance